

2024  
No.120



# KOREA UNIVERSITY

##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 미래를 향한 일진의 혁신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은 글로벌 No.1 자동차 휠 베어링 메이커로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 하겠습니다



휠 베어링과 샤시부품에서 산업용 베어링,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합니다

# ILJIN

국내법인 | ILJIN GLOBAL • ILJIN GLOBALHOLDINGS • ILJIN BEARING • ILJIN CORP • BEARING ART

해외법인 | 미국 ILJIN USA • ILJIN AMERICA • ILJIN ALABAMA 중국 ILJIN TIANJIN • ILJIN BEIJING • ILJIN CHONGQING • ILJIN JIANGSU • ILJIN SHANGHAI

유럽 ILJIN GmbH • ILJIN MOTION & CONTROL GmbH • ILJIN SLOVAKIA 인도 ILJIN INDIA • ILJIN GLOBAL INDIA

판매사무소 | PARIS (FRANCE) • TURIN (ITALY) • PUNE (INDIA) • BEIJING (CHINA) • YOKOHAMA (JAPAN) • SAOPAULO(BRAZIL)

일진그룹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7 Tel 02-553-1795 Fax 02-566-5621 [www.iljin.com](http://www.iljin.com)

일진그룹 부회장 이동섭 (경영89)

# 내일을 위한 또 다른 도전

## Green Transformation

한 발 앞서 미래를 마주하며,  
에너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온 **GS칼텍스**는  
ESG 경영을 기반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니다.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저탄소 신사업을 발굴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으로 에너지의 미래를 열다.

###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MR/CR 사업



### 수소/CCUS 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모빌리티용 액화수소 생산/공급,  
CCUS 청정수소 클러스터 등 구축



### 화이트 바이오 사업

기존 화석연료(원료)로 생산되는 제품을 대체하는  
바이오연료, 바이오케미칼 사업 추진



I am  
your  
Energy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 2024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 시              | 행 사 명            | 장 소                                   |
|------------------|------------------|---------------------------------------|
| 2월 23일(금) 14:30  |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 인촌기념관                                 |
| 3월 15일(금) 18:00  | 상반기 상임이사회        | 취영루                                   |
| 4월 20일(토) 10:00  | 제2회 힐링트레킹        | 고대 뒷산(개운산)                            |
| 5월 8일(수) 12:00   |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 패컬티 하우스                               |
| 6월 13일(목) 11:00  | 상반기 골프대회         | 몽베르CC                                 |
| 7월 초             | 야구부 후원금 전달       | 장소미정                                  |
| 9월 26일(목) 12:00  | 제2회 경영대 OB 골프연고전 | 연대주관(장소미정)                            |
| 9월 28일(토) 18:00  | 고연전 뒤풀이 축제       | 춘자(예정)                                |
| 10월 8일(화) 12:00  |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 패컬티 하우스                               |
| 10월 15일(화) 18:00 | 하반기 상임이사회        | 취영루                                   |
| 10월 18일(금) 11:00 | 하반기 골프대회         | 장소미정                                  |
| 12월 6일(금) 18:30  | 제42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br>서울 파르나스<br>그랜드볼룸(5층) |



#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4\_ 2023 하반기 상임이사회
- 06\_ 009 발대식
- 08\_ 교우의 밤
- 20\_ 학위수여식
- 22\_ 2024 상반기 상임이사회
- 24\_ 골프고연전
- 25\_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 26\_ 인터뷰
- 31\_ 교우기부
- 32\_ 교우동정, 임원위촉
- 34\_ 교우활동
- 36\_ 교우신간
- 37\_ 교우기고
- 47\_ 학번별 소식
- 68\_ 경영대 소식
- 71\_ 고대 축구부 100주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4 통권 제120호 Vol.42

발행일 2024년 3월 29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동섭  
편집인 박창수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 연회비 납부 요청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교우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영대학 교우회에서도 다양하고 즐거운  
행사를 통하여 친목과 단합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소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연회비 납부는 회원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회장, 상임이사 등 임원단은  
임원분담금 납부로 갈음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원께서는 연회비 3만 원이므로  
생각났을 때 바로 납부해 주시면,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회비 납부계좌 :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 2023년 하반기 상임이사회 개최

〈2023년 하반기 상임이사회〉가 2023년 11월 6일(월) 오후 6시 반, 논현동 소재 취영루에서 개최됐다. 박창수(경영85)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한 행사에서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은 “한 해 동안 경영대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와 여기 계신 상임이사님, 부회장님, 감사님, 자문위원님들의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곧 교우의 밤 행사가 예정되었는데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지막 남은 교우회 행사에 많은 참석을 요청했다.

김상용 경영대학장의 학사보고가 있었다. 경영대학의 1년 동안의 현황과 변화에 대해 발표했고, 2024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이어 제41회 교우의 밤 장학금 모금을 주관하는 96학번에서 대표로 참





석한 박정열 교우(C반대표)는 “각 반별로 이번 행사를 홍보하고 모금하는 중이다. 학반별로 내려오는 전통을 지켜 부족함 없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후 박창수 사무국장은 2023년 경영대 교우회 현황을 행사 사진을 통해 보고했고 12월 1일에 있을 교우의 밤에 대해 변경된 행사장소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재무현황 보고도 있었는데 이에 관련하여 한성근(경영95) 교우는 “새로운 자금운용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교우회 자산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두희(경영76) 명예교수, 최준영(경영82)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배형근(경영84) 현대모비스 부사장(현 현대차증권 대표이사), 김상용 경영대학장, 권성우 경영대 부학장, 신호정(무역86) 대외협력처장 등 총 48명이 참석했다.





009

발 대 식



## 009 모임 발대식

00~09학번

2023.11.15(수)

삼성동 인근 호신각



이동섭 교우회장이 주최한 009(00학번~09학번) 발대식을 2023년 11월 15일(수) 삼성동 인근 호신각에서 개최했다. 51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 특별히 809 대표로 김평국(경영89) 부회장, 909 대표로 최창규(경영90) 부회장과 윤선규(경영92) 상임이사가 참석해 후배 교우들을 격려했다.

박창수(경영85) 사무국장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다. 이동섭 교우회장은 “009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면 현재 가장 바쁠텐데 교우회에 관심을 갖고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우리 교우회는 많은 선배 교우분들이 지지하시고 후원해주셨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금지와 자부심, 우리의 결속력은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009가 교우회의 허리,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교우회 모임들을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909 대표 최창규(경영90) 부회장은 “909 모임 창립할 때는 이렇게 많이 모이지 못했다. 그래서 부럽기







도 하고 '009가 잘되면 909가 분발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자극을 받았고, 오늘을 계기로 009 모임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교우회 모임을 즐겁게 하고 네트워크를 잘 쌓으며 교우회의 주도적인 세대가 되어달라. 우선 12월 1일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 많은 참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현우(경영01) 교우가 사회를 넘겨받아 행사를 이어갔다. 009 모임의 초대 회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천영석(경영00) 교우를 009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천영석 교우는 수락 인사로 "모임은 올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즐거워야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고 싶은 모임으로 만들어가겠다. 선배님들도 많이 참석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009 모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자기소개, 현재 하는 일과 궁금한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미니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석자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모임 이후 2024년 2월 21일(수), 이규원 95학번 동기회 회장이 운영하는 역삼동 소재 이도공탕에서 909와 009의 콜라보(두 단체 연합) 모임이 있었다. 2024년 행사일정과 올해 첫 공식 행사인 힐링트레킹을 소개하며 교우회 행사에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행사를 마쳤다. 이날 모임에 30명이 참석했다



009 회장 천영석 교우





# 제41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의 밤

코엑스 컨벤션  
그랜드볼룸(1F)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제41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12월 1일(금) 코엑스 컨벤션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김동원 총장, 정몽원 경영대 교우회 명예회장, 조성호 전 경영대 교우회장 직무대행, 김상용 경영대학장 등을 비롯해 명예교수, 현직교수,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450여 명의 교우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55학번부터 16학번 교우들은 2023년 한 해 동안의 경영대 교우회의 활동상과 세계 30위, 아시아 1위를 향해 도약하는 경영대학의 비전을 확인하고 교우간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김동원 총장



김상용 학장



# 제41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96학번

사회자 안종욱(경영89), 정이나(가교08) 교수와 이승현(경제19)의 개회선언과 함께 96학번 각반 대표들이 태극기, 교우회기, 경영대기를 들고 입장하면서 공식 행사가 시작됐다.

이동섭(경영89) 경영대학 교우회장은 개회사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교수님들의 훌륭한 가르침과 여러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국내에서 최고이자 글로벌 명문으로 위상을 높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자랑스러운 교우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우리에게서는 학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선후배 간의 끈끈한 정, 모교 발전을 위한 헌신과 같은 훌륭한 전통이 있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앞으로 강한 교우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영대학 교우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빠르게 변화하고 더욱 치열해진 경쟁사회에서 교우 간의 결속으로 강해진 교우회는 현재를 넘어 미래의 교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오늘 행사에 참석하신 교우님들께서 우애를 나누시고 즐겁고 뜻깊은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승명호(무역74)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은 “오늘의 힘차게 달려온 한 해를 보람있게 마무리하며 제41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교우회장이기 이전에 경영대학 졸업생의 한 명으로서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전했다. 또한 승명호 교우회장은 “경영대학 교우의 밤은 선후배간 화합을 꽃피우는 훌륭한 전통이자, 꾸준한 장학금 전달로 모교 발전과 후배사랑을 과시해왔다”며 지금까지 모교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아낌없이 후원해 주신 경영대학 교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원(경영78) 총장은 “경영대학은 고려대학교 첫 출발부터 지금까지 함께 발전해온 단과대학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핵심 인재들을 배출했으며, 지금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명문 고려대학교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앞장서 연구하고, 교육하면서 인류사회에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많은 분들께서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에 공감하고 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히고 경영대 교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어 김상용 경영대학장은 축사를 통해 “경영대학은 교우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후원으로 발전을 거듭해오며 한국 최고를 넘어 글로벌 명문으로 성장하고 있다. 경영대학은 교우님들과 함께 현재의 위상에 만족하지 않고 2030년까지 세계 30위 아시아 1위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상용 경영대학장은 경영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현황과 장학금 수혜율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학업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동기부여 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영대학의 성과(공인회계사 합격자 8년 연속 배출 1위, QS 학문분야 Accounting & Finance 국내 사립대 1위 등), 2024년 새롭게 진행하는 스타트업 스테이션 펀드 론칭에 대해 발표하며 아시아 리딩스쿨로 발돋움 하고 게임체인저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했다.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왼쪽부터 손재일 교수,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 추경호 교수, 정의선 교수 대리 수상자 최준영 교수)



경영대에 장학금 전달



이규원 95학번 동기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영상으로 수상소감 전하는 정의선 교수



79학번



84학번



89학번

2022년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당시 7,200만 원을 기탁한 95학번(이규원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으며 2023년도 장학금 모금을 주관한 96학번은 총 6,000만 원을 조성하여 경영대에 전달했다.

2023년 '올해의 교우상'은 공직자 부문의 추경호(경영79)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가 부문은 정의선(경영89)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전문경영인 부문은 손재일(경영8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사장/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선정됐다.

'올해의 교우상'은 폭넓은 대외활동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교우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해외 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한 정의선 회장은 영상으로 수상소감을 전했고 기아자동차 최준영(경영82) 대표이사 사장이 정 회장을 대신하여 대리수상했다. 이날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수상자가 속한 79, 84, 89학번 교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케익커팅식을 시작으로 2부 순서의 막이 올랐고 유상욱(경영55)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이만우(경영73) 명예교수, 승명호(무역74)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의 건배제きが 있었다. 만찬시간을 통해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동기들과 선후배의 안부를 확인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등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진 정태호(경영98) 트리오 'Chamber Works'의 재즈 공연, 경영대 재학생 동아리 '브로드'의 댄스공연, 경영대 재학생 밴드 '너와나'의 Rock 공연, 서초교회 소속 '서초크림슨밴드'의 Rock 공연으로 행사장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다.

공연 중간 경영대학 교우회장의 부재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제9대 경영대학 교우회장 추대에 힘쓴 비상대책위원회 조성호(경영80) 전 회장 직무대행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이후 행사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교우들의 찬조로 마련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증정했다.

마지막으로 응원단의 열정어린 무대와 교가 및 교호 제창으로 단결되고 하나 된 분위기 속에서 모교와 경영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며 성대한 축제를 마무리했다.



케익커팅식



조성호 전 회장직무대행에게 감사패 증정



정태호의 Chamber Works



브로드



서초크림슨밴드



너와나



응원단



## 경품 찬조하신 분 명단

격조 높은 경영대학 교우의 밤을 위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NO | 성명  | 학번    | 소속 및 직위                   | 찬조내역                                            |
|----|-----|-------|---------------------------|-------------------------------------------------|
| 1  | 김승유 | 61    | 한국투자금융지주 고문               | 현금 200만원                                        |
| 2  | 엄종일 | 61    | (주)럭스산업개발 회장              | 생활용품 세트 20개                                     |
| 3  | 이학수 | 65    | (주)엘앤비 인베스트먼트 회장          | 상품권 200만원                                       |
| 4  | 허광수 | 65    | (주)삼양인터내셔널 회장             | 핑 퍼터 3개                                         |
| 5  | 박성훈 | 66    | 재능그룹 회장                   | 포켓용 수첩 600개                                     |
| 6  | 최상영 | 69    | 영스틸 대표이사 / 일본교우회장         | 상품권 500만원                                       |
| 7  | 허정수 | 69    | GS네오텍 회장                  | 상품권 200만원                                       |
| 8  | 구자열 | 72    | LS그룹 이사회 의장 / 고려대학교 발전위원장 | LS상품권 200만원                                     |
| 9  | 김 윤 | 72    | (주)삼양홀딩스 회장               | LG 55인치 UHD TV 1대                               |
| 10 | 강호갑 | 74    | (주)신영 대표이사 회장             | 상품권 300만원                                       |
| 11 | 승명호 | 74    | 동화그룹 한국일보 회장 /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 LG 차량용 공기청정기 1대                                 |
| 12 | 정몽원 | 74    | HL그룹 회장 / 고우체육회장          | 광고협찬 300만원                                      |
| 13 | 한호석 | 74    | 청탐산업(주) 대표이사              | 현금 100만원                                        |
| 14 | 허경수 | 75    | 코스모 회장                    | 고급 와인 12세트 (레 제리티에르 생주니, 베그 마티오 샤블리)            |
| 15 | 박현주 | 78    | 미래에셋그룹 회장                 | 광고협찬 300만원                                      |
| 16 | 이선용 | 80    | 베어트리파크 대표                 | 현금 100만원                                        |
| 17 | 정몽규 | 80    |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 정선 파크로쉬 숙암 SUITE객실(1박) 3매                       |
| 18 | 박수근 | 81    | (주)비에스이 대표이사              | 디어밀크 수분케어 세트 60개                                |
| 19 | 이충진 | 81    | ALGOVITAL KOREA 대표        | Algovital 화장품(쉐어버터 부스터 5개, 크림 10개, 오일토너 5개) 20개 |
| 20 | 김상용 | 서울대83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고대 벽걸이 달력 800부, 화환 1대                           |
| 21 | 강용구 | 84    | (주)나이스디앤비 대표이사            | 메디힐 마스크팩 세트 10개                                 |
| 22 | 전찬혁 | 88    | (주)세스코 대표이사 회장            | 광고협찬 300만원                                      |
| 23 | 이동섭 | 89    | 일진그룹 부회장 / 경영대 교우회장       | 무선 청소기 50개, 캐시미어(100%) 머플러 20개(300만원 상당)        |
| 24 | 정의선 | 89    |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 광고협찬 500만원                                      |
| 25 | 김평국 | 89    | (주)디유넷 대표이사               | 강철부대맥주 세트 30개, 와인 1입 20세트                       |
| 26 | 최창규 | 90    | (주)나무경영아카데미 이사            | 현금 100만원                                        |
| 27 | 이상호 | 95    | 글랜우드 투자자문 대표              | 현금 300만원                                        |
| 28 | 천영석 | 00    | (주)트위니 대표이사               | 타이틀리스트 골프공 하프더즌 20세트                            |
| 29 | 정진혁 | 04    | (유)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테일러메이드 드라이버 1개, 퍼터 1개                           |
| 30 | 최대현 | 04    | 캐번클럽 대표이사                 | 영양제(아르기닌) 600개                                  |
| 31 | 소수영 | 16    | 장형그룹 부장                   | 보냉백 30개                                         |





## 공직자 부문

###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교수  
(79학번)



\* 행사당시 소속과 직책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경호 교수는 1979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였고 제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약 40여년간 공직과 정치 일선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추 교수는 기획재정부내 주요 보직을 거쳐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정책을 아우르는 최고의 경제정책 관료로 활약하였다.

이후 정계로 진출, 대구 달성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20대, 21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예결위 간사, 운영위 간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경제문제에 대한 높은 이해와 민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국회내에서의 주요 정책논의에 앞장섰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민간·시장 중심 경제운용과 글로벌 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다. 가중된 복합위기 상황에서 유관기관과의 전례 없는 거시·금융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며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두고, 물가안정,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유류세 인하 등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법인세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경제규제 개혁 등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성장의 중심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8년만의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15년만의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국가 위상도 높이고 있다.

경제 일선에서 불철주야 뛰면서도 추경호 교수는 기획재정부 직원들로부터 '달고 싶은 상사 1등'으로 뽑혔다. 이런 추 교수의 모습은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전 교우의 긍지가 되고 있다.



## 기업가 부문

### 현대자동차그룹

회 장

정의선 교수  
(89학번)



정의선 교수는 경영학과 89학번이며 기아 사장,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을 거쳐 2020년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으로 취임했다. '인류를 위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 아래 인본주의 철학에 기반한 사람 중심의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에 나서고 있다.

정의선 교수는 인류의 상상과 고객의 기대에 답하며 현대자동차그룹을 글로벌 모빌리티 업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질적 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톱3' 자동차 기업에 안착했다. 인류에게 한 차원 높은 이동의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정의선 교수의 차세대 모빌리티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전략에 힘입어 경쟁력이 입증된 전기차는 물론 로보틱스, 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 항공 모빌리티),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수소생태계 구축 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의선 교수는 미래 세대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 책임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2022년 'B20 서밋(B20 Summit)'에서는 기초연설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과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역설해 세계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한 아시아양궁연맹과 대한양궁연맹 회장으로서 비인기 종목 양궁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사회공헌에 앞장서고 있다.

정의선 교수와 모교의 인연은 3대에 걸쳐 있다. 할아버지 아산(峨山) 정주영 선대회장은 청년 시절 지금의 본관 신축 공사에 참여했으며,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백신혁신센터 건립 기금 100억원을 기부했다.

정주영 선대회장과 정몽구 명예회장은 1995년과 2003년 각각 고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정의선 교수는 현재 고려중앙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안암캠퍼스에는 '아산이학관'과 '현대자동차 경영관'이 있다.

전세계 산업계는 현대자동차그룹을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Smart Mobility Solution Provider)'로 변모시키며 패러다임 전환기에 미래 모빌리티 영역을 재정의하고 있는 정의선 교수의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정의선 교수는 2021년 글로벌 유력 자동차 매체 『오토카』 최고 영예의 상인 '이시고니스 트로피(Issigonis Trophy)'를 수상했으며, 2022년에는 글로벌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2022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중에서 '올해의 비저너리(Visionary of the Year)'에 선정됐다.

올해에도 세계적 권위 자동차전문지 『모터트렌드』의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에 등재됐고, 영국 찰스 3세 국왕 즉위 후 한국인 최초로 '대영제국 지휘관 훈장(Honorary Commander of the Most Excellent Order of the British Empire, CBE)'을 수훈했다.





## 전문경영인 부문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손재일 교우  
(84학번)



손재일 교우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84학번으로, 1990년 한국화약 입사 이후 줄곧 한화그룹 내 주요 계열사를 거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한화그룹의 방산사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금년 초, 한화그룹의 방산계열사인 한화디펜스와 (주)한화/방산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내로 통합하여 방산사업 뿐 아니라 항공 및 우주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을 맡아 뉴스페이스 시대의 대한민국 우주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 노력 중이다.

지난해 호주와 이집트, 폴란드 등에서 대규모 수주를 통하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수출이 처음으로 내수 매출 규모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함과 동시에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다.

또한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서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힘을 보태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주, 항공, 방산 기업으로서 전세계의 안보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글로벌 초일류 혁신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손재일 교우는 섬세하면서도 과감한 리더십과 결단력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과 성공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주항공 및 방산 첨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다.



## 역대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 년도   | 이름      | 회사                |
|------|---------|-------------------|
| 1984 | 김상홍(41) | 삼양사 회장            |
| 1985 | 이명박(61) | 현대건설 회장           |
| 1986 | 구두회(49) | 호남정유 사장           |
| 1987 | 이종원(48) |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대표      |
| 1988 | 이준범(50) | 고려대학교 총장          |
| 1989 | 이양섭(57) | 현대자동차 사장          |
| 1990 | 장진호(71) | 진로그룹 회장           |
| 1991 | 김희집(55) | 고려대학교 총장          |
| 1992 | 이상일(57) | 일진산업 사장           |
| 1993 | 이경식(53) | 경제기획원 장관          |
| 1994 | 이우영(55) | 중소기업은행장           |
| 1995 | 김익철(62) | 뉴코아 회장            |
| 1996 | 장재국(75) | 한국일보 회장           |
| 1997 | 이석호(55) | 주리원백화점 회장         |
|      | 정장호(59) | LG텔레콤 부회장         |
| 1998 | 남궁석(61) | 삼성SDS(주) 대표이사     |
| 1999 | 유상옥(55) | (주)코리아나화장품 회장     |
|      | 정덕구(67) | 산업자원부 장관          |
|      | 김기재(69) | 행정자치부 장관          |
| 2000 | 이윤재(53) | (주)피죤 회장          |
|      | 이학수(65) | (주)삼성전자 사장        |
| 2001 | 김승유(61) | (주)하나은행 은행장       |
|      | 김신경(65) | 신한다이아몬드공업(주) 대표이사 |
| 2002 | 배정충(65) | 삼성생명보험(주) 사장      |
|      | 정몽진(79) | (주)금강고려화학 회장      |
| 2003 | 허광수(65) | (주)삼양인터내셔널 회장     |
|      | 윤진식(67) | 산업자원부 장관          |
| 2004 | 오영교(66) | KOTRA 사장          |
|      | 허창수(67) | (주)GS홀딩스 회장       |
| 2005 | 장경작(61) | (주)호텔롯데 대표이사 사장   |
|      | 박성훈(66) | (주)재능교육 회장        |
| 2006 | 유병택(63) | (주)두산 대표이사 부회장    |
| 2007 | 구자훈(67) | LIG손해보험(주) 회장     |
|      | 김용덕(69) |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
| 2008 | 김 인(68) | 삼성SDS(주) 대표이사 사장  |
|      | 김 윤(72) | (주)삼양사 대표이사 회장    |
|      | 구자열(72) | LS전선(주) 대표이사 부회장  |

| 년도   | 이름                                                | 회사                                |
|------|---------------------------------------------------|-----------------------------------|
| 2009 | 최상영(69)                                           | 영스틸 대표이사                          |
|      | 구본능(70)                                           | 희성그룹 회장                           |
|      | 김동수(74)                                           |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
| 2010 | 어윤대(63)                                           | KB금융지주 회장                         |
|      | 조남호(69)                                           | 한진중공업 회장                          |
| 2011 | 전윤자(51)                                           | 전 숙녀협동조합 이사장                      |
|      | 허정수(69)                                           | GS네오텍 회장                          |
| 2012 | 유휘성(58)                                           | 조흥건설 사장                           |
|      | 안덕수(64)                                           | 새누리당 국회의원                         |
|      | 나완배(70)                                           | GS에너지 부회장 겸 대표이사                  |
| 2013 | 승명호(74)                                           | 동화홀딩스 회장                          |
|      | 김창수(73)                                           | 삼성화재 대표이사 사장                      |
|      | 이완경(73)                                           | GS EPS 대표이사                       |
| 2014 | 문덕규(70)                                           | SK 네트워크(주) 사장                     |
|      | 추경호(79)                                           | 국무조정실 실장                          |
|      | *제1회 특별공로상 이충진(81) 알고비탈코리아 대표이사                   |                                   |
| 2015 | 정몽원(74)                                           | 한라그룹 회장                           |
|      | 강호갑(74)                                           | 한국증권기업연합회장                        |
|      | 정재찬(75)                                           | 공정거래위원장                           |
|      | *제2회 특별공로상 장치평(79) 아스트로너지솔라코리아 대표이사               |                                   |
| 2016 | 구자용(73)                                           | (주)티 대표이사 회장                      |
|      | 이재홍(77)                                           |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      | *제3회 특별공로상 김동원(78)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 2017 | 서영률(69)                                           | PT.PRATAMA ABADI INDUSTRI 대표이사 회장 |
|      | 김영식(75)                                           | 삼일회계법인 CEO                        |
|      | 최종구(76)                                           | 금융위원장                             |
| 2018 | 허경수(75)                                           | 코스모 그룹 대표이사 회장                    |
|      | 최수규(79)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      | *제4회 특별공로상 경영809                                  |                                   |
| 2019 | 이선용(80)                                           | 베어트리파크 대표                         |
|      | 박정호(82)                                           |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
|      | 김종양(81)                                           |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총재                   |
| 2022 | 박정원(81)                                           | 두산그룹 회장                           |
|      | 최원목(79)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      | *제5회 특별공로상 송공석(05) 와토스코리아(주) 대표이사 특별상 KUBS Ladies |                                   |











## 2024년도 제117회 학위수여식



고려대학교(총장=김동원)는 2월 23일(금) 오전 10시 고려대 인촌기념관 대강당에서 제117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학부 3,737명, 대학원 2,275명 등 총 6,012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졸업생들의 재학시절 동안 팬데믹을 겪으며 자유롭게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도 없었고 교육과 연구는 모두 새로운 방법으로 이뤄져야만 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선배 세대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원대한 꿈과 높은 이상을 세우고 정성을 다해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여정을 거치며 인류사가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무회장은 “여러분이 세상으로 첫발을 내딛는 이 순간, 여러분 앞에 펼쳐진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이 공존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 도전하고,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혁신을 이끌어 갈 주역이 되어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의 등 뒤에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수많은 선배들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달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고대인다운 지성과 야성으로 여러분의 꿈을 일구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객노정(재료공84)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전했다. 객 사장은 먼저 Chat

GPT로 작성한 축하 메시지를 소개하며 앞으로 열릴 AI 시대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맞이할 첫 번째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객 사장은 중세 대항해시대를 언급하며 “용기를 갖고 먼 바다로 나간 사람들은 신대륙 발견과 세계사를 다시 쓰는 업적을 이뤄냈다. 실패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성공은 많은 실패를 딛고 얻을 수 있으며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영대학은 ‘제117회 경영대학 학위수여식’을 인촌기념관에서 별도로 진행했다. 이동섭 경영대 교무회장은 “낮은 고지(실현 가능한 단기적 목표)부터 열심히 올라라.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낮은 고지부터 점령해 나간다면 많은 기회와 새로운 목표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되 실패하게 되더라도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상황을 객관화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하면 더 크게 실패하는 상황은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성실하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졸업생들에게 당부했다.

김상용 학장은 “1905년부터 민족의 등불로 나라의 독립과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그 소임을 다해왔으며 오늘 여러분들도 그 빛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시대의 소임을 다 해왔듯, 자유 · 정의 · 진리의 고대정신으로 자랑스러운 새로운 역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경영대학 학위수여자는 △학사 전 · 후기 통합 426명 △석사 82명 △박사 전 · 후기 통합 12명 △석 · 박사 통합 3명 △MBA 전 기 278명 총 801명이다.









## 2024년 상반기 상임이사회 개최

2024. 3. 15(금)  
오후 6시, 논현동 소재  
취영루

2024년 3월 15일(금) 오후 6시, 논현동 소재 취영루에서 <2024년 상반기 상임이사회>가 40명의 경영대 교우회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은 “옛그제 교우회장으로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갔다. 교우회장으로 취임 이후에 교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행사를 다채롭게 진행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행사 때마다 참여해주시고 뜨겁게 호응해주신 회장단 여러분과 상임이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새봄처럼 따뜻한 행사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 힐링트레킹을 4월 20일 안암동 모교 뒷산 개운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많이 참석해주셔서 학창 시절의 즐거웠던 시간을

추억하시고, 교우분들과 함께 따뜻한 새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있을 행사에 많은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 김상용 경영대학 학장 대신 정재호 연구부학장, 김광현 기획부학장이 참석했다. 김광현 부학장은 경영대학 현황과 성과, 발전방향에 대한 학사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한상일(경영90)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김평국(경영89) 부회장의 2023년 주요성과 보고가 있었다. 김평국 부회장은 전통을 잇는 교우회, 즐거운 교우회, 유익한 교우회로 분류하여 2023년에 진행했던 행사들이 어떤 호응이 있었는지, 어떤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보고하였고 2024년에 진행할 사업계획과 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2024년 첫 신규 임원 위촉식이 있었는데 오인환(경영86), 오선근(경영90) 교우가 신임 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이어진 만찬 시간에서는 상임이사회에 처음 참석한 이경순 61학번 동기회장, 마자르회계법인 파트너 박승하 경영85 동기회장, Deloitte안진회계법인 총괄대표이사인 홍종성(경영87) 부회장, 정재호 경영대학 연구부학장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이사회 참석한 소감을 전했다. 오랜만에 교우회 공식 행사에 참석한 교우들의 정담이 오가는 활기찬 분위기 속에 교우회 발전을 기원하며 행사를 마쳤다.









## 골프고연전 시상금 전달식

2024년 3월 13일 12시 '골프고연전 시상금 전달식' 오찬 회동이 여의도 소재 삼도식당에서 있었다.

이 모임은 지난 2023년 10월 25일 클럽72CC에서 개최된 '제1회 경영대 OB 골프고연전'의 연장선에서 열렸다. 골프 경기가 끝나고 만찬 시간에 각 학교에서 10명씩 추첨하여 고려대OB팀(이하 고려대)이 6:4로 승리해 고려대가 우승 트로피와 1,000만 원 상금을 차지했다. 이후에 1,000만 원을 다시 연세대(연경장학회)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그 시상금 전달식을 이날 진행했다.

시상금 전달식을 축하하기 위해 고려대 경영대 교우회에서는 이동섭(경영89) 교우회장, 박창수(경영85) 사무국장, 이정환(경영89) 교우, 안성수(경영96) 교우와 작년 골프고연전 당시 사회를 맡았었던 안종욱(경영89) 교우가 참석했다. 연세대 상경·경영대 동창회(이하 연세대)에서는 강호찬(경영95) 상경·경영대 동창회장, 이용석(경영98) 운영위원장, 조흥로(경영94) 부회장, 김민경(경영98)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시상금 전달식 이후 장학금을 전달 방식을 논의하였

으며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는 지난 1회 골프고연전 당시 즐거웠던 순간들을 공유했다. 올해 하반기에 개최될 제2회 골프고연전에서는 연세대에서 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선수구성은 어떻게 할 건지, 누가 만찬시간에 사회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가 오갔다.

제2회 골프고연전은 9월 26일에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다.





## 최상영 일본교우회 회장 명예경영학박사 학위수여식

3월 22일(금) 오후 4시

장소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상설관 국제원격회의실(B1)

### 최상영 일본교우회 회장,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

고려대와 와세다대학 간의  
협력 관계 구축 및 활성화 및  
교우회 발전을 위한 기여,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공로



고려대는 3월 22일(금) 오후 4시 백주년기념상설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최상영 일본교우회 회장 명예경영학박사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고려대는 최상영 일본교우회장이 한일 간 철강, 자동차 무역의 가교역할 수행, 재일본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체육 인재 발굴과 범교포 차원의 후원사업 추진, 일본 교우회장으로서 해외 지역 교우회 운영의 모범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대와 교우회 발전을 위한 기여 및 모교 럭비부 선수의 훈련 비용 전액 지원 등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고려대와 와세다대학 간의 협력 관계 구축 및 활성화를 한 공로를 인정해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최상영 일본교우회장은 1973년 고려대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고려대 일본교우회 회장에 선임되어 모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했으며 고려대와 자매결연한 와세다대 재학생들에게 고려대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양교 학생들 간 활발한 상호 교류와 이해증진에 기여했다.

최상영 일본교우회장은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 3세로서 일본 시장에 한국 자동차 판매점을 개시하여 일본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했으며, 동시에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민간사절로서의 역할을 했다.

최상영 일본교우회장은 현재의 영스틸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일본에서 철강 제품의 수출입 업무에 종사하며 45년간 한일무역의 가교역할을 담당했다. 사회활동에도 관심을 보인 최 교우회장은 2004년 재일동포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200여만 명의 재외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해외 동포의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최상영 일본교우회장님은 일본 내 한국인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민족 고대가 세계 고대가 되기 위한 발걸음에 앞장서 왔다. 최상영 일본교우회장님의 뜻을 따르며 고려대는 앞으로도 높은 업적을 세워 미래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상영 일본교우회장은 답사에서 "모교로부터 명예박사를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저는 예로부터 사회 공헌을 인식하고 실천해 왔다."며 "제가 기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이바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진실한 마음, 성실한 활동을 통해 봉사, 기부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3월 25일자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췌





##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 정 진 혁

대표이사  
경영 04



#### 1. 교수님과 회사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04학번 정진혁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 부회장, 경영대 교우회 부회장이며, 현재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이하 “센트로이드”)라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이하 “PEF”)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트로이드는 2015년 3월 제가 설립하여 현재 2.7조 원 규모의 운용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대표적인 PEF 운용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센트로이드의 대표적인 투자기업으로는 글로벌 3대 골프 브랜드인 테일러메이드골프와 국내 최고급 퍼블릭 골프장인 사우스프링스CC 등이 있습니다.

테일러메이드골프의 경우 당사가 운용 중인 펀드를 통하여 2021년 8월 글로벌 본사를 포함하여 전세계 사업 경영권 지분 100%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저는 대상회사의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 2. 회사 대표이사로서 젊은 편에 속합니다. 어떠한 계기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나요? 회사 설립 전엔 무슨 일을 했는지요?

한국 PEF 산업은 자본시장법이 생겨나면서 태동하게 되었으며 불과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센트로이드를 설립할 당시인 2015년에도 PEF 역사가 10여 년밖에 안 된 상황으로 미국 등 선진 자본시장의 성장 흐름과 KKR, 블랙스톤 등과 같은 글로벌 PEF들의 역사를 보며 한국 PEF 운용사에 대한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더하여 제가 꿈꿔왔던 금융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기업을 성장시키고 기존 일자리



의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를 촉진하며, 국민의 부를 증진시키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왕 시작할 바에는 차라리 이른 나이에 시작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PEF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혹시나 사업이 잘 안되더라도 충분히 재도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회사를 설립하기 전 IMM인베스트먼트, 맥쿼리 증권 등 훌륭한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하며 금융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태도, 자질, 가치관 등을 쌓게 되었고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3. 센트로이드에서 처음 인수한 회사는 어떤 회사였나요?**

저희가 처음으로 경영권 인수를 한 회사는 대전 소재의 IT 전문기업 솔리드이엔지라는 회사입니다. 동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소수지분 투자만을 진행해 왔으나, 국내 PEF 시장 내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경영권 인수에 집중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첫 인수사례가 솔리드이엔지였습니다. 회사는 국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수명주기기술루션(PLM,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을 제공하며, 국내 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슈퍼컴퓨터, Cloud, AI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PLM과 공공기관대상 시스템통합 업무만 수행하던 회사에서 센트로이드가 인수하여 Cloud, AI 비즈니스로 확장하였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4. 회사 설립한 지 얼마 안됐는데 미국계 골프용품 브랜드 테일러메이드와 골프장 사우스스프링스CC를 인수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요?**

[다른 PEF 운용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의 경우 항상 차별적인 투자 전략과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금융 및 산업 지식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실제 설립 초기 투자자들과 어렵사리 잡은 잠재적 투자자 미팅 기회를 살리고자 기업 분석보고서를 100페이지 이상 준비하며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 및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설립 초기부터 소수지분 투자에만 집중하던 다른 펀드들과 다르게 어렵지만 PEF 투자 전략의 기본에 충실하고자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 인수 거래에(이하 “Buy-out”) 집중하였고 거기에 맞는 조직과 전문가들을 꾸준히 영입하여 Buy-out 전문 하우스라는 명성을 쌓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 내 우수한 기업들을 인수하여 경영을 직접 영위하는 이점은 훌륭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투자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얻기 위해선 각 산업내 고유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경쟁우위 전략을 갖추도록 조직을 이끌고 변화를 도모하며, 매순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영권 인수 딜에 집중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지만 조직 내부에는 가치 있는 무형의 자산들이 쌓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들과 선순환 구조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바탕으로 젊은 조직의 역동성을 잘 활용하





여 테일러메이드, 사우스프링스와 같은 글로벌 Top class 기업과 최고 수준의 자산들을 인수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 중이고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재와 조직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여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글로벌 PE 하우스로의 성장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 5. 센트로이드의 Buy-out 철학과 센트로이드만의 특별한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한국은 지금까지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Global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국부는 Private Equity를 비롯한 Global 대체투자부문에서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세계 무대에서의 발전하는 경제적 위상과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다양한 해외 투자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반면, 국내 PEF 운용사들의 경우 여전히 한국 및 인근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와 전문성에 국한되어 있어,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 창출 및 value up 전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센트로이드는 다양한 규모의 국내기업 인수 경험은 물론, Global 선진 시장의 우량기업에 대한 투자 발굴 및 기업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경쟁 운용사 등이 달성하고 구현할 수 없는 cross border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량을 track record를 통해 증명해 왔습니다. 국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해당 전략적 투자자의 downside protection을 구성하는 것이 그간 국내 PEF 시장의 일반적인 cross border buyout 거래였다면, 당사가 수행한 테일러메이드 거래는 국내 은행, 연기금, 공제회 등의 금융기관들이 주도하여 순수한 경영권 인수 사례로서 국내 자본시장의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테일러메이드로부터 기대되는 높은 투자수익은 어느 특정 기업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수익으로 귀속되는 뜻깊은 의미로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당사는 한국 기업들의 global 시장에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아시아 시장에 추가적인 성장여력이 있는 global 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장전략의 수행을 통해 한국 내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진정한 cross border buyout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하우스로, 타 GP들과는 차별화된 투자기회 창출 및 value up 전략 수행을 할 수 있는 운용사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Global 회사인 TaylorMade에 대한 가치 증대 작업을 통해 북미, 유럽에서 높은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내고있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제고하여 전체 기업가치 향상을 시현할 수 있다는 전략을 실증하여 왔으며, 이러한 전략을 다양한 산업 및 기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역량을 축적하였다는 것이 센트로이드의 비교우위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인수작업, 경영관리에 대한 자신감과 산업 전문성을 활용하여, TaylorMade인수 후 1년여만에 첼시FC를 소유 중인 Clearlake Capital이라는 글로벌 8위 운용사와 Concert Golf Partners에 대한 공동투자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운용사로서는 이 또한 전례없는 사례로, 당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 공동투자자산에 대한 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글로벌 운용사와 함께 진행중에 있습니다.



## 6.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나요?

약 천만 원이 안되는 돈으로 오직 개인의 노력과 열정만을 믿고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와 부족한 경력, 대단하지 않은 배경을 가지고 PE업을 시작하였고, 소위 엘리트 그룹들로 구성된다든 PE 시장에서 네트워크를 쌓고 좋은 거래를 발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자서전 등을 읽으며 그들도 투자업계의 Guru가 되기까지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과 도전들을 이겨내고 그 위치를 도달하는 모습을 보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의 background 등을 아쉬워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을 즐기며 그 성장하는 속도를 즐기게 됐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 또한 어려운 상황도 단순화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7. 회사 경영진에 경영대 교수 몇 분 재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연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지요? 맡고 있는 분야도 알려주세요.

센트로이드 임직원 25명 중 고려대 졸업생은 8명이고 전원 경영대학 출신입니다. 타 대학대비 압도적인 비율을 자랑하고 있고 그렇기에 회사가 고려대 색이 너무 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당연히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알았던 선배들이 대다수이고 그 중 상당 부분은 같은 동아리(향영회) 출신입니다. 지금처럼 회사가 커지지 않았을 때부터 저를 믿고 훌륭한 직장을 저버리고 센트로이드에 합류한 인력들로서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센트로이드 고유의 문화와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 소중한 인적자원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고려대 출신 대다수가 포트폴리오운영본부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부서는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경영관리를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기업의 성장전략의 수립부터 제대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거나, 직접 포트폴리오 기업에 상주하며 직접 Daily operation까지 수행하는 등 투자 기업의 가치 창출 및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핵심 부서입니다. 고려대 출신 특유의 친화력, 책임감, 근성, 투지, 조직을 위한 희생정신 등을 발휘하며 투자 기업 최전선에서 회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 8. 작년에 NIF(Next Intelligence Forum) 후원금으로 고려대학교에 4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학교에 대한 고마움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들 비중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저의 사업에는 많은 부분 학교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투자자 그룹, 자문사,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실제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위해 투자금 모집에 난관에 봉착했을 때 고려대 출신의 투자기관 담당자분들이 먼저 연락을 주시고 투자 의사를 밝혀 주시며 난맥을 뚫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를 나오지 않았으면 PEF 운용사를 차려서 절대 성공을 못했을 거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 선배님들께 배웠던 그 지식과 야성의 인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정신, 진취적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은 제가 사업을 하며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맑은 정신과 판단력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와중에 김동원 총장님께서 뵙자고 말씀을 주셨고 그



자리에서 NIF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 학번과 사회적 위치를 생각하면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학교에서 받은 가르침과 사회에 나와서 받은 교수님들의 도움을 생각하며, 제가 받은 그것들에 비하면 전혀 크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2025년 학교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며 배움과 지식의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학생들에게 훌륭한 경험을 제공해 줄 의미 있는 기회라 생각해서 기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 9. 센트로이드의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센트로이드의 비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PEF 운용사로의 성장입니다. 투자 운용자산의 규모와 투자 기업들 모두 글로벌 Top tier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센트로이드는 대한민국 PEF 운용사 중 가장 젊은 조직으로 손꼽히고 동시에 글로벌 Top brand를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는 유일한 운용사입니다.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Time value입니다. 센트로이드는 국내 운용사 중 가장 젊기에 가장 큰 Time value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뛰어나고 독보적인 경험과 성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운용사로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자부합니다.

### 10.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고대인의 정신은 제 삶에서 큰 원동력이었고 지금도 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의 명예와 가치관을 드높이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분명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드넓고 찬란한 미래를 위해 도전하는 교수님들이 많을 거란 생각입니다. 힘들때일수록 서로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대 정신이 강하게 전파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응원해주는 교수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저 또한 교우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률 회장 부부와 김동원 총장, 인도네시아 학생 대표들

## 서영률 프라타마 아바디 회장, 장학금 2억 원 쾌척

2023년 11월 23일(목)  
서영률(경영69) 프라타마 아바디  
(PT. PRATAMA ABADI INDUSTRI)  
회장이 장학금 2억 원을 기부했다.

서영률 프라타마 아바디 회장이 기부한 장학금 중 1억 원은 재학 중인 인도네시아 국적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활용될 예정이고 또 다른 1억 원은 경영대학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서영률 회장은 수혜자인 인도네시아 유학생 80여 명을 초청해 타국에서의 학업 생활을 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서영률 프라타마 아바디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회사를 설립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마음의 고향 고려대를 항상 잊지 않고 있다”라며 “자랑스러운 모교의 후배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길 바란다”며 직접 준비한 기념품을 증정했다.

서영률 프라타마 아바디 회장은 1989년 인도네시아에서 프라타마 아바디를 설립, 현지 최대 규모 나이키 신발 OEM 제조자로 발전시킨 기업인이다. 일자리 창출과 외화 획득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한국 내 자재 소싱을 통해 자국의 수출 증대에도 공헌하고 있다.

2023년 11월 23일자 커뮤니케이션팀 기사 발취



허광수 회장과 김동원 총장

## 허광수 (주)삼양인터내셔널 회장, 체육생활관 개선 위해 3억 원 쾌척

2023년 11월 24일(금)  
허광수(상65) (주)삼양인터내셔널 회장이  
체육생활관 환경개선기금으로 모교에  
3억 원을 기부했다.

1999년부터 모교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고 있는 허광수 회장은 “고연전에서 보여준 뛰어난 활약과 최근 여러 경기에서 연이은 승리를 하고 있는 후배들이 더 좋은 체육 시설에서 운동하며 꿈을 향해 정진했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쾌척해주신 기부금으로 새로 태어날 체육생활관은 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인 캠퍼스 인프라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꾸준한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제641호 고대교우회보 기사 발취



## ■ 교우동정

**윤진식 (경영67)**

2024년 2월 16일  
윤진식 교우가 제32대  
한국무역협회장에  
취임했다.

**구자열 (경영72)**

2023년 9월 20일  
구자열 교우가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만찬에서  
벤 플리트 상을 수상했다.

**서명범 (경영75)**

2024년 1월 2일  
서명범 교우가  
신성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한윤상 (경영78)**

2023년 12월 1일  
한윤상 교우가 고려대학교  
교우회 수석부회장으로  
위촉됐다.

**강신호 (경영81)**

2024년 2월 16일  
강신호 교우가  
CJ제일제당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박노준 (경영82)**

2024년 3월 1일  
박노준 교우가  
우석대학교 제15대 총장에  
취임했다.

**노충식 (경영84)**

2024년 2월 1일  
노충식 교우가 울산  
경남지역혁신플랫폼  
센터장에 취임했다.

**배형근 (경영84)**

2024년 3월 21일  
배형근 교우가  
현대차증권 사장으로  
선임됐다.

**류순열 (무역85)**

2024년 1월 1일  
류순열 교우가  
UPI뉴스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윤의영 (무역85)**

2024년 1월 1일  
윤의영 교우가  
현대해상 전무에  
선임됐다.

**이준서 (경영87)**

2024년 2월 26일  
이준서 교우가  
한국증권학회장에  
취임했다.

**장승권 (경영87)**

2023년 11월 22일  
장승권 교우가  
LG에너지솔루션  
전무에 선임됐다.

**석호징 (경영89)**

2024년 1월 5일  
석호징 교우가 키움증권  
리스크관리 부문장에  
선임됐다.

**연원섭 (경영89)**

2023년 12월 22일  
연원섭 교우가  
한국전력 전북본부장에  
선임됐다.

**윤재원 (경영89)**

2024년 3월 26일  
윤재원 교우가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오선근 (경영90)**

2023년 12월 28일 오선근  
교우가 제56회 하이테크어워드  
SW테스트 자동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남상우 (경영92)**

2023년 12월 8일  
남상우 교우가 교보생명  
디지털마케팅 담당  
상무에 선임됐다.

**선 욱 (경영92)**

2023년 11월 22일  
선 욱 교우가  
메리츠화재 이사로  
선임됐다.

**신재광 (경영93)**

2023년 12월 5일  
신재광 교우가  
삼성자산운용 상무에  
선임됐다.

**오상휴 (경영93)**

2024년 2월 16일  
오상휴 교우가  
광주지방국세청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김대현 (경영96)**

2024년 2월 19일  
김대현 교우가  
CJ푸드앤케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 김영빈 (경영98)

2024년 2월 8일  
김영빈 교수가  
대전 중구청 부구청장으로  
취임했다.



#### 정경선 (경영05)

2023년 12월 18일  
정경선 교수가  
현대해상 CSO에  
선임됐다.

### ■ 교수동정



#### 권수영

2024년 2월 29일  
모교 권수영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 박경서

2024년 2월 29일  
모교 박경서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 한재민

2024년 2월 29일  
모교 한재민 교수가  
정년퇴임과 함께  
 명예교수에 위촉됐다.

### ■ 결혼을 축하합니다.

성환태(경영79)

2024년 4월 27일 아들 민준군

정여울(경영11)

2023년 12월 3일 본인 결혼

송승민(경영90)

2024년 5월 24일 아들 현준군

###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백영훈(상50)

2023년 10월 16일 본인 별세

최성호(경영78)

2024년 2월 20일 모친상

권중택(경영55)

2023년 11월 13일 본인 별세

홍진택(경영78)

2024년 1월 25일 모친상

조대행(경영55)

2023년 12월 본인 별세

박진호(경영79)

2023년 12월 25일 부친상

유창진(경영56)

2023년 12월 29일 본인 별세

양원묵(경영79)

2023년 12월 29일 빙모상

이인수(경영56)

2023년 11월 1일 본인 별세

황일운(경영79)

2024년 1월 28일 부친상

최의정(상60)

2023년 12월 10일 본인 별세

최명길(경영80)

2023년 12월 9일 모친상

엄무성(경영61)

2023년 12월 24일 본인 별세

박훈신(경영86)

2024년 1월 17일 모친상

이대규(경영71)

2023년 12월 4일 부인상

김무경(경영89)

2024년 3월 20일 빙부상

강선기(경영78)

2024년 1월 17일 본인 별세

이강훈(경영89)

2024년 2월 8일 빙모상

김성호(경영78)

2024년 2월 23일 본인 별세

조영택(경영98)

2024년 3월 11일 부친상

### ■ 임원위촉

#### 부회장

84학번 손재일

86학번 오인환

90학번 오선근

94학번 강지훈

96학번 이홍석

# “모교와 교우가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에너지네트워크 기부 CHAIN”

## 오 배 록

경영81·썬코리아 부사장

부드러운 바람과 향긋한 향기 가득한 이 봄에 고려대학교 교우들의 건강한 연합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김해에 (주)유니코글로벌대표이사 김영일(금속공학78)과 과천에 썬코리아(주) 대표이사 이준녕(금속공학81), 그리고 부사장 오배록(경영81)은 2023년 지난 한 해, ESG 경영 활성화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사업에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으로 시작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태양광발전소 사업개발 10MW 달성하였고 또한 해외자금 유치연계 비즈니스를 통하여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에 830억 원 지원 연계에 성공했다. 미국의 LOOP사부터 9억 달러의 전기자동차용 급속 충전기 수주를 대한민국에 유치 연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교우시너지를 통하여 작년 말부터, 자체적으로 자동차용 급속 충전기 파워 모듈 공급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 가며 교우와의 아름다운 연합 모델의 성

과를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고대의 자랑스런 교우 기업인으로서, (주)유니코글로벌과 썬코리아(주) 교우기업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통해 모교의 발전에 일조할 예정이다. 동시에 교우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가는 자랑스런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모교와 교우가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에너지 네트워크 기부 CHAIN”을 계획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교우기업의 사업지에 투입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금의 총 2%를 양사와 참여한 교우기업의 명의로 모교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체자금이 원활히 조성되어 모교와 교우회에 약 100억 원의 기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참여하는 교우기업은 수익금기부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수익증대와 더불어 수출 보국의 대한민국 RE100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그

리고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나눔의 장에 동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사업을 위해 그동안 만들어 온 성과를 바탕으로 교우기업 태양광 발전사업만을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해, 자산운용사를 통한 5,000억 원의 투자금을 조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한 동문 기업들이 자신의 명의로 모교에 명예롭게 기부할 수 있는 ‘모교 발전과 병행하는 동문간 협력사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이번 (주)유니코글로벌과 썬코리아(주)가 세운 “모교와 교우가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에너지네트워크 기부 CHAIN” 계획을 통해, 교우간 인프라 연계가 끈끈해지고 모교 발전기금 조성도 견고히 할 계획이다. 모교가 글로벌 대학으로 우뚝 서가는 귀한 디딤돌 되도록, 교우들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교우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기대해본다.



## 고려대 교우 조직구성



(주)유니코글로벌  
대표이사 **김영일**  
금속공학과 78



션코리아(주)  
대표이사 **이준녕**  
금속공학과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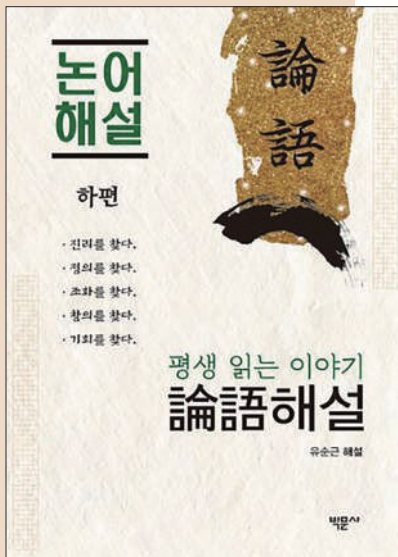


션코리아(주)  
부사장 **오배록**  
경영학과 81

## 사업 구조



“교우의 참여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교우의 이름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에너지네트워크 기부 CHAIN “  
태양광발전 투자자금 5,000억원 /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 100억원



## 평생 읽는 이야기 논어 해설 - 下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서 근심이 생기는 법이다.”

서명 평생 읽는 이야기 논어 해설 하편

출판사 박문사

저자 유순근(경영79)

출판일 2023.11.15

「평생 읽는 이야기 논어 해설」 하편은 개인의 변화 처세술, 언어관리, 조직 관리, 정의사회 실현과 공동체 조화에 관해 비유적인 성인의 말씀이 상편 보다 더 많아 성공, 조화와 공존의 바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논어 해설이다. 본 「평생 읽는 이야기 논어 해설」 하편은 밤이 새도록 읽으면서 전율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성인과 공감을 갖는 다리가 될 것이다.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공자 시대는 진실,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탈진실의 시대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연 진실, 정의와 도덕이 살아있는가? 진실을 진실이라 하고 거짓을 거짓이라 하지 못하는 시대는 영혼이 혼란한 시대이다. 진실, 정의와 도덕이 무너진 시대를 살아있는 영혼의 시대로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통찰, 삶의 가치와 사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다행히도 논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정도(正道)를 안내해 주는 논어(論語)는 철학, 문학, 역사와 논리를 제시한 삶의 지혜로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교훈서이다. 논어는 일생 동안 읽는 동양의 고전인데, 번역된 논어만을 읽는다면 공자(孔子)의 심오한 교훈을 놓치기 쉽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회 배경을 알고 논어를 읽을 때 논어의 오묘한 진리까지 터득할 수 있다. 그래서 본 「평생 읽는 이야기 논어 해설」은 논어의 문장을 해석하고, 역사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단문과 비유를 풀이하고, 특히 생략된 표현을 본문에 적합하게 보충하여 논어의 완벽한 이해를 돕는 이야기 있는 유일한 논어 해설서이다.





## 봄이 오는 길목에서

김진하  
상66·시인

깃털을 한껏 부풀려 날아가는 비둘기를 보니  
봄이 가까이 와 있다.

봄이 오면 서달산 자락엔  
백옥같은 하얀 매화가 수줍은 듯 피어난다.

나는 봄의 기척을 느끼고 싶어  
오늘도 새벽 산길을 간다.

새들의 지저귐이  
봄을 재촉하는 자연의 노래다.

자욱한 안개 속에 봄의 정령이  
길을 헤맨다.

봄비가 한 차례 내리고 나면  
땅을 뚫고 여기저기서  
비비추 새싹들이 얼굴을 쑥쑥 내밀겠지.

은행나무 물관으로  
물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아! 봄이다  
창가에 부딪히는 햇살이 반짝하고 빛난다.

## 묵이지지(默而識之)



春崗 황인강  
상61·수필가

어느 사이 젊음이 흘러가는 세월 속으로 떠나가 버렸을까. 삶이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한순간임을 절감한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아쉬웠거나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아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욕심 때문인가도 싶다. 나이를 한 살 또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이리라.

나이 탓 때문일까. 남아있는 세월이 많지 않아 무엇이든 배워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런 자세가 점점 느려지고 희미해져 고민이다. 의지도 약해져 간다. 삶에 대한 의욕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다. 얼마 전, 대기업 경영에 두각을 나타낸 저명한 CEO가 쓴 묵이지지라는 공자의 성찰에 대한 글을 어느 일간지에서 읽었다. 나의 부족함을 깨우치는 방망이였다. 배움의 참뜻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을 묵지(默識)라고 했다. 논어에 나오는 글이다.

묵묵히 자신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뜻을 이해하고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데 마음과 같이 실행이 안 돼 속상하

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河有於我哉

묵이지지  
학이엄불  
회인불권  
하유어아재

다. 배운 것을 어떻게 실천할까 잊지 않고 꾸준히 이행하기 위해 삶의 원리로 삼아 실천해야 하리라. 공자는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 한다. 공자 자신도 인생을 성찰해보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했다. 인생이란 정해진 삶이 아니기 때문일 것 같다. 배운 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묵묵히 지켜야 하거늘 그렇지 못해 안타까움을 나타낸 것이리라.

나도 겸허한 자세로 삶의 지표를 삼고 지내려고 애를 써온다. 세월은 끊임없이 달려가고 오늘에 뒤돌아보며 점검해 보면 왕성했던 젊음에서 멀어지고 처지는 것이 느껴진다. 최선을 다해 애를 쓰지만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 어느덧 두려움부터 다가와 조바심이 생기곤 한다. 나이에 따른 부작용일 수도 있겠다. 글쓰기만 해도 그렇다. 게을러지고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자주 일어난다. 지난 세월과 비교해 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역시 마음뿐이다. 그러다 보니 허탈함을 종종 느끼게 된다.

글쓰기에 전력투구하는 것도 허영심이 아닐까 하는 회한에 빠지는 때도 있다. 하기는 인생이 빈손으



말하지 않지만 마음에 새겨두고  
 배우는데 싫증을 내지 않으며  
 가르치는데 게으름을 피우지 않으니  
 나에게 무엇이 (더) 있겠는가

『논어(論語)』 「술이(述而)」



로 와서 빈 몸으로 간다고 했는데,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잖은가. 명예도 재물도 목숨 같은 애뜻한 사랑도 세월의 끝자락에 되놓고 가야 한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옛 성현들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다.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면 어떤 의무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 부담감은 더 쌓인다.

삶의 끝자락이라는 명제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해답을 구해야 되겠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 지내는 삶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과욕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름의 기준이라도 세워 거기에 근접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마음의 평화와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우고 내려놓는 실천이 익숙해야 하거늘, 의도대로 안되니 아쉬움만 더할 뿐이다. 끊임없이 지키고 채우려고만 하니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수많은 것을 공짜로

받으며 산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자연의 변화 속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고, 지천으로 널려있는 바람, 공기, 햇빛을 공짜로 누리니 마음 곳간 부자다’라고 시인 류인순은 읊고 있다. 공자는 배운 것을 늘 마음에 새겨두고 실행하라고 했다. 이것은 소명일 수도 있겠고 평생을 통해 지켜야 할 대명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공자가 고민했던 인생에 대한 질문을 나에게 던져본다. “묵묵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실행하고 있는가. 남은 인생 지켜야 할 삶의 지표는 있기는 한가.”

오늘까지 단단히 기둥을 세우고 제대로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그것이 글쓰기와 독서가 될 수가 있고, 강건한 육신과 정신,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 건강한 정신은 바로 마음을 비우며 겸손과 감사의 생활, 긍정과 배려 그리고 열정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옛 성현의 말씀이 가슴에 더욱 와닿는다.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 무엇으로 흔들리는 나를 붙잡을 수 있을까. 이 여러 개의 기둥이 나의 가슴속에 세워질 묵이지의 꽃말이 아니겠는가.



칼레메그단 요새

## 베오그라드의 옛 도시, 칼레메그단에서의 산책

김종순  
경영62

베오그라드행(行) 비행기를 타기 위해 자그레브 공항 18번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워낙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라 탑승객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 두리번거렸다. 탑승 시간이 두 시간이나 지나 이쪽저쪽을 살피는데, 출구가 18번에서 16번으로 변경된 사실을 안 것은 탑승하기 바로 직전이어서 참 난감했다.

베오그라드(Beograd)는 세르비아(Serbia)의 수도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9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6개의 연방구성원이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탄생했다. 이 왕국은 1941년까지 지속되었다.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요시프 브르즈 티토가 총리 겸 대통령으로 국가를 통치하면서 개방 정책을 시도해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소

득수준과 경제력을 자랑했다. 1980년 티토가 사망하고 연방공화국 내의 각 민족들이 독립을 선언하자, 유고연방을 주도한 세르비아가 연방의 독립을 반대하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베오그라드에 입국했다. 사람들을 따라 출구를 빠져나와, 택시 이용 방법을 안내해주는 데스크로 갔다. 안내자의 부리부리한 얼굴과 공격적인 표정, 거친 말씨에 기가 죽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거칠어졌구나하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었다. 호텔 주소를 내밀자 1,800디나르라고 쓴 종이를 주면서 택시들이 줄을 서 있는 곳으로 가라 한다. 차를 타고 호텔로 들어오는 길에는 드문드문 보이는 불빛과 세차게 몰아치는 빗소리만 들렸다. 낯선 곳이고 어둠이 깊어 겁이 났는데 기사 아저씨는 라디오의 노랫소리에 맞춰 핸들을 두드리고 있었다. 신나는 곡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의 이 도시를 보고 싶었다.



오스트리아 성채와  
루지카 교회

호텔은 바로 구시가지 중심에 있었다.

맑은 햇살은 거리 구석구석을 비쳤고, 살랑거리는 바람은 잎새를 흔들고 있었다. 말끔한 거리는 양쪽에 서 있는 건물들의 자태를 곱게 꾸며주었고, 폭격에 파괴된 건물은 새롭게 단장해 정갈했다. 오래전부터 이 도시를 지켜왔던 낡은 건물들이 아주 드물게 하나둘 눈에 띄었다. 어젯밤 기사 아저씨가 이 구역은 자동차 진입이 불가하다며 떠나갔을 때, 비는 계속 내렸고, 지도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만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펼쳐진 이 찬란한 아침의 도시를 카메라로 담고 또 담았다. 폭이 넓은 중앙도로와 군데군데 들어선 카페는 여러 종류의 꽃으로 장식되어 여행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져, 어젯밤의 무서웠던 침묵과 이곳에서 일어났던 참담한 전쟁이 어느새 머리에서 지워졌다.

칼레메그단 요새(Kalemegdan Fortress)는 베오그라드 유적 중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었고, 이 성채는 신석기 시대부터 사바와 다뉴브강이 합류하는 고지대에 위치한 천연 요새로 BC 3세기에 켈트족이 정착했다. 이들은 그 당시 농업과 도기를 개발하고 동전도 만들었다. 1세기 초 로마가 지배했던 시절에는 다른 부족의 반복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요새나 성을 만들었고 2세기 초에는 싱기두눔(Singidunum)이란 군단의 기지를 만들었다. 이 '싱기두눔'은 고대도시로 오늘날의 세르비아 수도인 베오그라드이고, 제한된 자치권을 가진 정착지의 지위를 말한다. 로마제국이 분할된 후 '싱기두눔'은 동로마제국에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오스만 투르크가 1521년부터 베오그라드를 점령한 후 거의 2세기 동안 통치하면서, 요새를 내버려 두어 황폐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칼레메그단 공식 홈페이지에 의하면 요새에 오스만 투르크의 문화적인 유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분수대와 파사의 무덤(Damad Ali Pasha)만 남아있다.

공원 입구에는 민속 상품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자 흰색 석고로 조각해 둔 사람들이 보였다. 공원 안은 큰 나무들이 우거져 숲을 이루고, 성벽 바로 밑으로 흘러가는 사바강(江)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는데, 로마시대 유적이 보였다. 한 채당 100여 명의 군인을 수용할 수 있는 병영들, 사령



부, 훈련용 홀, 곡물 저장고, 병원, 목욕탕, 성벽 바로 밖에는 검투사들의 싸움을 구경하는 5,000석 규모의 원형경기장이 있었다고 한다. 요새화된 군사 진영은 파헤쳐져 윤곽만 남아있는데 그 당시 군인들이 사용했던 우물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우물은 성문처럼 만들어 뚜껑을 덮어 그 내용을 기록한 팻말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다. 유럽 여러 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로마의 유적은 거의 비슷한 흔적을 가지고 있다. 강을 내려다보니 흐르는 물줄기는 유유히 인간에 대한 흥망성쇠는 어찌 이리도 무참할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제국들이 어디 이곳뿐일까마는 보는 이의 마음은 씁쓸했다.

요새의 끝자락인가? 원통 모양의 적갈색 건물이 보였다. 꼭 중세의 성(城)같아 그쪽으로 갔다. 나는 이상하게도 이런 성을 보면 흥분한다. 사진은 요새의 동쪽 하단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의 성채다. 오스트리아는 1688년에 베오그라드를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엔지니어의 설계를 기반으로 현대 요새를 건설했다. 성벽 보루와 토목공사로 새로운 건축물들을 다시 지었다. 성채는 넓고 크게 자리 잡았고, 성채에 빙 둘러선 건물들은 높고 웅장해 눈을 크게 뜨고 올려보아야 보인다. 붉은 벽돌로 촘촘히 쌓아 올린 외벽은 견고하다 못해 딱딱해 보였고, 폭탄이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았다. 건물 아랫부분 군데군데 쇠창살 문이 부착되어있는 것을 보니, 그 당시 감옥으로 사용한 것 같았다. 건물 마지막 부분에 계단이 보여 밑으로 내려가니 뜻밖에도 담장이 앞으로 온통 덮여있는 돌로 지어진 루지카 정교회(Ruzicka)가 있었다. 1867년 세르비아가 베오그라드를 되찾을 때는 군대 교회로 사용했고, 교회 입구에는 '청동 경비병에 의해 지켜졌다'는 청동상이 있었다. 제1차 대전 때 파괴되었지만 해방 투쟁에 참여한 여성들의 기부금으로 재건되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설교가 묘사된 프레스코와 카트라지, 대포 탄약, 장교 검, 마케도니아 전선에서 군인의 권총으로 만든 3개의 상들이레가 자랑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교회를 나와 성채의 여러 문을 지나오는데 오스만에서 짓기 시작해 오스트리아 통치하에서 완성된 사합 게이트와 시계탑(Sahat Gate and Clock Tower)이 있었다. 이 문은 요새의 상단 부분의 주요 입구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문 위



칼레메그단 공원





싱기두눔

로 올라가는 시계와 사합 타워는 건축 당시 독창적인 모습을 지금까지 유지한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다. 탑의 높이는 약 28미터고, 시계는 와인딩(Winding) 없이 일주일까지 작동할 수 있다. 네모반듯하게 쌓아 올린 탑은 흰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꼭대기에 부착한 시계는 현재의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

세르비아의 2000년 역사를 가진 이 요새는 베오그라드의 역사 그 자체이다. 중세 이후에는 성채 안에서 사람들이 살고, 그 수가 많아지자 성채 밖으로 나가 베오그라드라는 도시가 형성되었다. 진단문(Zindan Gate)을 비롯하여 사방에 안과 밖을 연결하는 많은 문들이 있었고, 요새 안에는 전쟁의 역사인 '군사박물관'과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독립을 기념하는 '승리자 기념비', 제1차 대전 동안 도와준 프랑스 국민에 헌정한 청동 조각상과 천문대, 박물관 등이 있었다.

코스보 내전과 보스니아 전쟁 당시 세르비아는 사라예보 시내 곳곳에 저격수를 배치해, 거리의 시민을 향해 무차별 총알을 쏟아부었다. 어느 누군가의 특정 인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세르비아 사람이 아니면 모두 적이고, 이슬람을 믿는 알바니아계를 죽였다. 그르바비차 마을에서는 보스니아계의 여성들을 집단 강간하고 임신한 여성을 수용소에 가두어 낙태를 못하게 했다. 이러한 일은 보스니아계의 인종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었고, 오스만이 세르비아를 지배한 당시 그들이 행한 민중 핍박을 세르비아는 오스만에게 되돌려 주었다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었다. 이 비극적 참상은 서방세계에 알려져 세르비아의 주요 거점에 미국과 나토가 집중 폭격해 베오그라드 시내의 거의 파괴되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에도 포격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요새에도 군데군데에 그런 흔적이 보였다. 이 도시는 지난 200년간 40번이나 파괴되고 다시 건설된 아픈 피의 역사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나는 안 내자와 공원을 걸어 나오면서 현재의 이 평화가 베오그라드의 시민들과 함께 영원하기를 기원했다.

2023년 6월

## 사 진 출 처



- 칼레메그단 요새, 칼레메그단 공원, 싱기두눔, 사합 게이트
- 오스트리아 성채와 루지카 정교회

베오그라드 요새 홈페이지

세르비아 닷컴

사합 게이트





## 한반도 지정학의 재인식



**이 경 순**

경영61· <글의 세계>발행/편집인

지정학(地政學geopolitics)은 지리적인 환경이 국가에 미치는 정치적, 군사적 또는 경제적인 영향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역사학, 정치학, 지리학, 경제학, 군사학, 문학, 문명, 종교, 철학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식이 불가결하게 됩니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머리 위로 광활한 바다가, 발아래에는 넓은 대륙이 펼쳐집니다. 이 지도에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인 유라시아에서 가장 넓은 바다인 태평양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인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인 셈입니다. 결국 ‘거꾸로 된 세계지도’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반도가 아니라 대륙과 해양의 양방향으로 동시에 발전시켜 동아시아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한다는 명제를 일깨워줍니다.

### 1. 기후와 천혜의 자연조건의 한반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현상이 불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토는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70위 안팎으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국토의 내용으로 보면 한 뼘, 한 치도 못 쓰는 땅이 없습니다. 사막, 빙하, 높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황폐한 땅이 없다는 말입니다. 국토의 질로 볼 때 세계 최대의 나라 러시아가 열지 않는 항구를 가지고 있지 못한 반면에 한반도는 나진, 청진에서 시작하는 동해로부터 남해, 서해 도처에 수십

수백 개의 항구나 항구의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 대단히 비옥합니다. 유럽 중북부의 비옥한 땅이라는 독일평원은 3년마다 휴경을 하지 않으면 작물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을 대서 유기물을 흘려보내는데도 비옥합니다. 단위면적당 남한의 벼농사는 세계 1위의 소출을 가져옵니다. 석유나 유연탄 등 전략적 지하자원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지질학개론에서 우리나라를 지하자원의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금, 은, 동, 텅스텐, 우라늄 등 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포항 앞 바다에서 가스가 생산되어 산유국이 됐지만 앞으로 7광구 등 한반도 해역 여기저기에는 유전 잠재지역이 여러 곳 있다고 합니다.

춥고 덥다고 하지만 이에 따른 혜택도 큼니다. 스키, 해수욕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땅이 넓고 풍요롭지만 해수욕장이 없는 나라입니다. 스위스도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지만 해수욕장이 없습니다. 동남아에는 스키장이 없습니다. 겨울에 영하 34도까지 체감온도가 떨어지는 대관령에 가면 동남아 관광객이 눈 구경을 하러 옵니다. 우리나라는 또 춥고 더워 전염병이 오래가지 않고 풍토병도 많지 않은 이런 곳이 흔치는 않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물이나 음식을 마음 놓고 못 먹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다 보니 기후 차이를 이용한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 등 발효 식품들이 많습니다. 또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처럼 1년 내내 같은 형태의 옷을 입지 않고 날씨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습니다. 다채로운 삶



을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북유럽은 춥고 어둡다보니 자연의 영향에 따른 자살률이 높지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아름다워 많은 이들이 좌절했을 때 산에 올라가 쾌적함과 맑은 공기 속에서 심기일전하고 내려옵니다. 자연의 조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산천이 아름답고 아기자기합니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맑고 어족이 풍부한 최고의 바다입니다. 청진은 태평양상에서 최고의 바다입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청진항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도 했죠. 서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붕을 가지고 있고 또 개펄이 넓어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가 더 크지만 쓰지 못합니다. 서해안은 사람의 손으로 해안의 모양을 가장 많이 바꾼 곳입니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서해안을 간척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남해안은 세계 어느 바다보다 청정하고 해안선 섬이 아름답고 양식장에서 김과 갯가지 생선을 생산해 냅니다. 남해안의 통영 여수 앞바다는 FAO에서 청정해역 지정을 하고 검사를 합니다.

이 같은 기후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 연결하는 한반도에서 전 세계를 향해 한류, K컬처가 지금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 2.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 연결하는 한반도

백두산이나 한라산이 화산이라고 해도 활화산이 아니라 위험하지 않고 백두대간을 중주하다보면 국토의 아름다움에 탄복하게 됩니다. 만경평야의 넓은 지평선,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선산으로 이어지는 수없이 아름다운 분지에서 고을마다 학문을 이루어 영남학파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국토가 이토록 아름답고 훌륭한데 함부로 비하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국토는 어머니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물과 과일, 곡식 등 이 땅에서 주는 것으로 구성되지요. 살다가 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묻혀 이 땅의 일부분이 돼서 돌아갑니다. 이 땅을 함부로 못났다, 못 쓴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조상들이 수십만 년 살아왔고 우리가 살고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땅입니다.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근세에 들어 우리가 이 땅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만주벌판, 남양군도(미

크로네시아), 하와이, 일본으로 헤매며 고생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다음으로 고생했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 세력이 충돌해서 갈등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고, 침략 외세들 간의 이해다툼으로 질곡의 운명을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변부에 위치해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가 불리하다는 가설은 거짓입니다. 본래 그 가설이 나온 것은 독일의 칼 하우스퍼(Karl Haushofer)에 의해서입니다. 본래 군 장성이자 주일독일대사관 무관 출신으로 후에 뮌헨대 지정학 교수를 지냈는데 독일 지정학의 오도된 이용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가 주일대사로 일본에 있을 때 일본 군벌들과 만든 가설입니다. 유라시아대륙 심장부(heart land)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지배하는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가설입니다.

## 3. 반도에 있는 나라 대부분 살기 좋아

반도가 불리하다면 이론적으로 세계 반도들이 그런 운명을 겪었어야 합니다. 그리스반도는 아테네인이 서양문명의 모체인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고 이탈리아반도에서는 로마인들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대서양으로 열린 땅인 이베리아반도에서는 에스파냐 제국의 무적함대가 지구의 3분의 1을 식민지화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고, 덴마크의 유틀란트반도는 빙하 침식으로 척박한 땅을 개간 세계 최고의 농업 국가를 이룩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반도는 덴마크 땅보다 더 황량한데 그런 곳에서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루었고 모두가 훌륭한 문화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대제국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사라센, 오스만투르크 제국 등 끊임없는 전쟁과 투쟁 정복의 역사를 반복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왜 그런가? 이론적으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러나 이 가설은 반도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반도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처럼 내륙에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반



면 아테네, 로마, 나폴리, 리스본, 바르셀로나, 헬싱키, 오슬로 모두 다 항구입니다. 바다로 진출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 원인입니다. 해양 문명이란 개방과 포용을 전제로 합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번영하는 것은 외부 세력과의 교섭이 얼마나 활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때 문화 발전의 동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폐쇄적이었을 때 외세에 침탈당했습니다. 6진을 개척하고 바다로 진출했을 때는 강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외자를 도입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유학생을 내보내고 외국기술자를 데려오면서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나라의 문을 여는 것이 흥하게 하는 길입니다. 북한이 주민을 굶기고 생존의 한계에 있는 것은 폐쇄 정책과 소위 '우리끼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 4. 우리의 경영 능력이 성패를 좌우

이렇듯 한반도는 한 때 반도를 경영하는 데 실패했지만 반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한반도는 대단히 훌륭합니다. 제일 큰 바다인 태평양을 향해 직통하는 주 항로상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해상루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에서 가장 큰 해양으로 이어집니다. 왼손에 태평양 또 오른손에는 유라시아대륙을 잡고 있습니다. 동해의 일본, 서해의 중국과 연결되어있는 우리의 좌우의 큰 시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상에서 전략적이고 중요한 땅이 없습니다. 이 땅의 주역들이 그러한 전략을 못 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계의 구도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보니 열강의 각축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옆에 반도로 중국의 산둥반도나 요동반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서해에 닿혀 있습니다. 메인루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한반도가 주변 지역이라는 설에 대한 반박입니다. 주변이라는 개념은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등에 비해 주변이라는 생각입니다. 의사결정의 주변부에 위치한다는 의미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흔히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일컬어 극동(far east)이라고 합니다. 유럽 중심으로 세계문명을 봤을 때 중동, 근동, 극동이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중심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의사결정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로 넘어오고 있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등이 그 사례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동아시아가 경제 규모면에서 미국을 앞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미국, 서양을 극복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치관입니다. 합리주의에 따른 과학의 발달, 민주주의, 기독교사상, 휴머니티가 서구의 가치관입니다.

반도인 우리나라는 홍익인간 사상에 입각한 융복합 가치관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융·복합은 '융합'과 '복합'이 합쳐진 말로 여러 성능과 기술이 하나로 합쳐져 융합되어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낸다는 뜻입니다. 과학,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문학, 연극, 영화, 무용 등 예술계에서도 융·복합 현상이 전방위에 걸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국가의 운명이 크게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내에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국가로 등 터지던 새우에서 고래가 된 나라입니다. 고래가 되었으면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세계의 마지막 냉전 현상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태평성대는 몰라도 세상이 요동칠 때 한반도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됩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게 해양안보는 절대적 과제입니다.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는 해양영토를 지키는 전통적 안보와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수송로의 안전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한반도는 좋은 땅입니다. 통일 선진국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북극항로가 열리면 대한해협은 말라카해협보다 그 가치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예쁘다/오래 보아야/사랑스럽다/너도 그렇다.'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시로 끝을 맺습니다.



## 모교 의과대학에 시신기증을 결심하고서

구 자 형

경영 74

경영대 교우회  
전 수석부회장



모교인 고대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시신기증 유언서를 받고보니 이제 이 목숨도 언제라도 죽음을 받아들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래 의학이 발전하여 여러 질병을 퇴치하는 등, 많은 의학자들이 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은 인체의 정상적인 구조와 기능을 자세히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를 해부하여 구조를 연구하면서 생명의 존엄성과 귀중함을 스스로 체험하여 인술로서 승화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부학교실에 필요한 시신이 부족하여 의과대학생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입학 50주년을 맞는 2024년 연초에 현재 74학번 동기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제가 모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한참 고민하고 숙고하다가 모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 제 시신을 기증하는 것으로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신기증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를 설득하는것이 제일 힘들었지만 모

교 의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수차례 설득한 끝에 내 결정을 존중해줬고 자녀 둘에게도 그렇게 하겠다고 설득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모교의 혜택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지금이 자그마한 기부는 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신을 모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기증하며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시신 기증자들을 기리는 검은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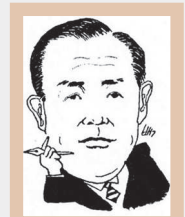




## 55 회장 이득주

### 동기 여러분들께 드리는 편지 ●●●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저물고 2024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2, 2023년은 세계 각국이 자연재해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미국 Hawaii의 마우이섬 대화재를 비롯해 Morocco 대지진, Libya 댐 붕괴(홍수 피해), Spain의 산불 피해 등 자연재해가 극심했습니다. 국내 상황 역시 자연재해가 많았으며, 화재 사고가 예상외로 많았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남쪽 지역만 많이 발생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국민들의 정신상태와 사회 각계각층 구성원의 책임이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득주 회장

※ 그간 단편 소식을 전합니다.

- ① 총회(2023.11.10, SPACE\*C에서 개최. 적조해소 및 healing도모) – 동기 10명(이득주, 곽창선, 황달호, 이승재, 정향택, 정명호, 이순용, 김종오, 이기현, 신문철) 참석
- ② 경영대학 교우의 밤(2023.12.1.) – 유상욱, 이득주 참석
- ③ 월례강좌(2023.12.28, 주제: 사진으로 보는 한국인의 정체성, 연사: 포토저널리스트 강형원 기자) – 동기 6명 참석
- ④ 월례강좌(2024.1.25, 주제: 백년을 살아보니, 연사: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 – 동기 8명 참석
- ⑤ 권중택(2023.11.13) 동기와 조대행(2023.12) 동기가 작고했습니다.

동기회원님들 건안하시고 노년 생활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는지 심히 걱정됩니다. 정신상태 등 심신의 모든 것이 소진되고 느낌이 들어 심히 안타깝습니다. 신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노년의 생활이 더욱 행복하고 윤택해지시기를 바라며 건강 백수를 기원합니다.

## 56 회장 이연상 / 부회장 변동수

### 56학번 동기회 정기총회 ●●●

코로나 사태의 진정으로 인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56학번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었다. 해마다 줄어드는 총회 참석 회원 수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 참석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1명만 줄어든 13명의 동기가 참석했다. 한 해 동안의 동기회 활동 상황과 동기들의 동정을 알리고 회칙에 따라 집행부 임원의 개선을 하려 했으나 올해도 연임하라는 회원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현 집행부가 계속 책무를 이어가기로 해서 벌써 11년째 연임이 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소식은 그동안 동기회 및 교우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왔고 부친부터 손주까지 4대 교우를 이어온 집안의 유창진 동기가 총회 이틀 뒤인 12월 29일 우리들과 영원한 작별을 하고 타계했다. 그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했던 동기들도 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기원을 했으리라 믿는다. 벌써 타계한 우리 경영대 56학번 동기가 확인된 것만 62명에 달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되고 있다.



## 막수회 (경영56동기회 월례회) ●●●

2023년에도 막수회 모임을 10번 가졌는데 연인원 77명이 참석해서 꾸준한 우의 증진과 담소의 기회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이번이 없는 한 매월 마지막 수요일 12시 30분에 약수동 춘천막국수 집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니 동기들 나이 90세 전후의 노화현상으로 쉽지 않은 건강 유지에 어려움이 많겠으나 그동안 열심히 참여했던 동기나 사정상 참여하지 못했던 동기도 되도록 참여해서 패기 넘치던 학창 시절과 긍지를 되새기며 젊음의 활기를 되찾는 대화로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회의 발전을 위하여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찬조금을 쾌척해준 강경구, 권용진, 백공용, 이남주, 이동표, 이종순, 최화득 동기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연이은 동기들의 찬조 덕분에 56학번 동�회 총회에서는 연회비 징수를 2018년을 끝으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고 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24년도에도 우리 동기들 건강에 특히 유의하며 우리 모임이 심신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참된 모임이 되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 바란다.



막수회

## 61 회장 이경순 / 총무 이채영

### 동기회 송년 모임 개최 ●●●

전체 동기회원들이 참여하는 2023년 송년회를 12월 15일 12시 이경순 동기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논현역 앞 중식당 취영루에서 송년회를 갖고, 코로나 사태로 적조했던 회원들이 오랜만에 근황을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이경순 회장의 제안으로 동기들의 고령화로 참석률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대로 연 2회(5월/12월) 전체 모임을 열되, 회비는 무료로 하고 비용은 동�회 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서예전 참관 ●●●

12월 13일~21일까지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재)이명박 대통령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이명박 서예전 '스며들다'에 송년 모임을 마친 동기들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방문하여 격려와 축하를 전하고, 이 전 대통령의 설명을 들으며 작품들을 감상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서예전 참관

### 초암회 ●●●

지하철 9호선 반포역 인근 산들해에서 홀수달 셋째 화요일 정기성 회장 외에 김성희, 박성현, 성규진, 성영일, 안희민 양재광, 이복성, 전준옥, 정기성, 정의철, 조일규, 채규학, 최창규, 홍대우 등 15명이 만나 친목을 다지고 있다. 11월 16일 모임은 특별 이벤트로 배우자



초암회



전원을 초대하여 초창기 부부동반 모임의 추억을 나누었다. 1월 16일 모임에 이어 다음 모임은 3월 19일 가졌다.

### 삼목회 ●●●

고령화 되고 있는 회원들이 날씨로 인한 부상 위험이 있는 동절기와 여름 폭염기에는 행사를 중단하는 관례에 따라, 12월은 실내 송년 모임으로, 1월과 2월은 쉬고 3월에 새해 행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매월 셋째 목요일 11시에 만나 서울 근교 둘레길을 박인우 회장 외에 김경학, 김근도, 김병수, 김순구, 김승현, 김택원, 민병직, 민병훈, 박무용, 박광옥, 박수죽, 박진자, 성영일, 윤종완, 이근태, 이경순, 이근창, 이 완, 이원태, 이정남, 이채영, 이춘원, 전춘옥, 정무광, 정시균, 정홍진, 정희진, 최창규, 최민자, 하준기 등의 회원 중 매월 10명 내외의 회원이 걷고 있다. 11월 16일 11시에 충무로역에서 만나 남산팔각정을 오른 후 중구 소재 닭개장집에서 반주를 곁들인 오찬을 함께하며 우중에 젖은 몸을 녹였다. 12월 21일 종로5가역 앞 팔도횃집에서 2023년도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함을 자축하고, 새해에도 안전하게 걸으며 건강을 단련하기를 다짐하는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날 식대는 최민자 회원이 부담하였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첫 걸기모임은 3월 21일 잠실역 1번출구에서 만나 석촌호수를 일주하며 봄꽃을 마중하기로 했다.



삼목회

### 도암회 ●●●

동기회 최초로 1980년 여의도에서 근무하던 동기들 30여 명이 모여 창립한 후, 현재 김 실 회장을 중심으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3시 여의도 리버티타워 2층 해변에서 모임을 꾸준히 이어오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현재 여의도 터줏대감 김 실 회장을 중심으로 김흥곤, 김윤장, 박광근, 박광동, 박윤서, 서진석, 손윤기, 이준웅, 이채영, 조방래, 채규학 등의 회원이 참여하여, 그간 11월 17일, 1월 19일, 2월 16일 각각 모임을 가졌고, 오찬비용은 회원들이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다. 다음 모임은 3월 15일에 가졌다.



도암회

### 청춘대학(실버학교) ●●●

매월 다음 달 모임 날짜를 정하여 만나서 맛난 음식을 즐긴 후,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각자의 근황을 털어놓으며 노년의 고독을 해소하고 있다. 최민자 학장 외에 김순구, 박인우, 박진자, 오영희, 이채영, (지방회원 김정자, 박준성) 등이 함께하고 있다.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암투병 중이던 업무성 회원(94학번 엄문성 교우 아버지)이 우리를 떠나 먼저 가는 바람에 12월 26일 회원들이 함께 찾아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2월 9일 북한산 삼천사에서 49재에 동참하여 절친의 극락왕생을 빌어주었다. 1년 사이에 회원 2명을 먼저 보내고 보니 저세상이 그리 멀지 않게 느껴졌다. 1월 30일 모임은 역삼역 5번출구 앞 고향마을에서 김순구 회원이 마련한 한정식으로 저녁을 함께하며 새해 덕담을 나누었고, 2월 28일은 압구정역 앞 통영마을에서 만나 손주의 축구 실력을 자랑한 김순구 회원이 준비한 회정식으로 오찬을 함



업무성 동기를 보내며



깨한 후, 인근 카페에서 지리산 반골 오영희 회원의 딸 김수연 대표원장의 청담모네의원 이전 개원 소식 등 회원들의 근황과 청춘대학의 새해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모임은 3월 30일에 하기로 했다.

### 이월회(강남지역 모임) ●●●

딱수달 둘째 월요일 낮 12시 30분에 양재역 앞 양재 정육식당에서 만나고 있으며 성영일 회장 외에 김윤장, 김순구, 김근도, 김승헌, 김우찬, 김지균, 김충홍, 박인우, 양재광, 왕규철, 이병우, 이복성, 이창웅, 이채영, 이준원, 정시균, 정희진, 채갑병 등 19명의 회원들 중 10명 내외가 참석하여 오찬을 함께하며 우의를 다지고 있다. 오찬 비용은 회원들이 순번으로 부담하고 있다. 12월 11일, 2월 19일 모임의 오찬은 이경순 신임 동기회장과 채갑병, 이채영 회원이 부담했다. 다음 모임은 4월 8일 양재역 9번출구 앞 산들해한정식에서 갖는다.



이월회

### 광암회(광화문지역 모임) ●●●

홀수달 둘째 화요일 12시 사당역 앞 참배나무골에서 훈제오리와 반주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11월 14일 송년회를 가졌으며 2024년 1월 9일 갑진년 신년 첫 모임은 강추위로 취소하고 3월 12일에 교대역 앞 참배나무골에서 모였다. 이채영 회장 외에 김근도, 김길남, 김병수, 김순구, 김승헌, 김우찬, 김윤장, 김지균, 민병직, 박광옥, 박수죽, 박식의, 박인우, 성영일, 신남용, 양재광, 왕규철, 원용계, 이근태, 이근창, 이경순, 이병우, 이복성, 이 완, 이정남, 이준웅, 이창웅, 장경작, 정시균, 정무광, 정홍진, 채갑병, 최 섭, 최창규, 하준기, 황인강 등의 회원 중 매회 15명 내외가 참석하고 있다. 다음 모임은 5월 14일 갖기로 했다.



광암회

## 62 회장 정병화 / 총무 한상욱 / 감사 송기현

### 동기회 가을 나들이 ●●●

2024년 갑진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62학번 동기회 신임 회장으로 정병화 교우를 지난 2023년 11월 15일 총회에서 회원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감사(송기현 교우)와 총무(한상욱 교우)는 연임토록 했으며 갑진년에도 교우회가 더욱 발전하도록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갖기로 했다. 또한 총회에 이어 송년회에서는 회원과 회원 부인과 같이 전임 회장(권동욱 교우)의 이임사와 신임 회장의 인사 말씀을 듣고 즐거운 저녁 식사와 회원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했다.



정병화 회장



정기총회



## 64 회장 안덕수 / 사무총장·재무총장 정원교

### 백수회 분당 중앙공원·율동공원 걷기 (백수회장 : 지동직, 걷기대장 : 이경희) ●●●

- 일시 : 2023년 11월 4일(토)
- 참석자 : 김광수, 김현희, 박채길, 신준철, 안덕수,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분당 중앙공원·율동공원 걷기

백수회원 중 많은 회원이 거주하고 있는 분당은 천당 밭이라고 했던가. 이석훈 회원의 안내로 서현역에 도착한 10명은 나지막한 동산과 숲, 맑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 등 빼어난 자연환경을 잘 다듬고 가꾸어 강남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정착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달래내고개, 유정란 등의 주제로 시작된 대화는 끝없이 이어지고 달래내는 물이 맛있다, 물이 단 냇가라는 말, 이것이 일제때 한자어로 바뀌면서 달천, 감천 등이 되었고 달래강, 달래내 전설은 여러 버전이 있으나 비슷한 설화라는 것이다. 가을이 깊어가니 붉은 단풍잎과 노란 은행나무잎이 썸치해지는 초로의 백수회원들에게 때로는 텅 빈 웃음을 선사해주고 공원 내 자리잡고 있는 한옥지붕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고 격의 없는 농담을 나누다보니 쌓인 스트레스 찌꺼기를 털어 버릴 수 있었고 요한 성당의 미켈란젤로의 어머니를 표현한 pieta 상이 세계 두 번째 실물 복제품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병환으로 유모를 따라가 살아야 했던 미켈란젤로가 유모 남편이 석공이었고 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과 객지에서 찾아와 어머니를 보려했으나 이미 소천해서 그리움과 슬픔을 표현한 위대한 작품을 이태리에서 보았던 기억 때문에 감회가 깊었고 성당 주변의 가성비 좋은 식당에서 허기진 배를 채울 때가 어쩌면 더 좋은 피날레를 만들어 준 것이었다.

### 2023년 정기총회 ●●●

- 일시 : 2023년 12월 11일(월)
- 장소 : 양재역 엘타워 5층 멜론 홀
- 참석자 : 강동식, 강용민, 고병선, 고충호 (권영기, 김귀분), 김건수, 김광수, 김덕명, 김덕환, (김동훈, 이하자), 김명수, 김상규, 김용운, 김윤호, 김인철, 김장수, 김현희, 문의언, 민선용, 박명익, 박일구, 박재진, 박채길, 박태웅, 박태원, 서상근, 손경식, 송병열, 송철호, 신방호, 신준철, 안덕수, 유명식, 유성준, 이강훈, 이경희, 이종덕, 이기석, 이석훈, 이성희, (이영표, 이연승), 이용규, 이원영, 이태경, 임성인, 정승택, 정원교, 조재복, 조중래, 조흥기, 지동직, 최수호, 최양섭, 최종욱, 최종한, 최훈일, 한만섭, 한상태, 허경호, 현봉길, 홍인표, 홍현묵, 황석희 (참석 총 66명, 성명 아래 밑줄은 협찬자)



정기총회

- 불참자(협찬) : 안상철, 정철현, 진천용, (강동식,故조정순), 가락동 임차인

코로나 여파로 총회 모임이 다소 가라앉은 듯했지만 새로 조직된 안덕수 회장을 비롯해 정원교 총장, 김동훈, 김인철 감사 등 회장단인 부부 동반과 참가회비 없이 소집한 23년 총회는 근래 보기 어려운 대성황을 이루었고 결과는 참석인원 66명, 찬조인원 37명에 안상철, 정철현, 외병 중인 진천용 동기 등은 총회 불참에도 불구하고 찬조하여 535만 원 거금이 모금된 경사가 이뤄졌다. 오후 5시부터 애국가, 교가를 부르며 총회를 시작, 특히 오랜만에 해후한 김명수, 이성희, 몸이 불편한 이영표는 딸이 에스코트하였으며, 조흥기 등이 반가웠다. 최수호의 사회로 노래와 장기자랑, 상품권 추첨, 퀴즈 풀기로 경품 추첨 등을 진행하면서 끝없는 정담을 나누었고 행사 마무리에 항



상 교호를 주도하는 최훈일 동기의 '쌔작(?)'이 연호 된 후 총회를 성대히 마무리했다.

## 등산회 망년회 (등산회장 : 이용규, 등산대장 : 고병선) ●●●

- 일시 : 2023년 12월 30일(토)
- 참석자 : 고병선, 고충효, (권영기, 김귀분), 김광수, 김덕환, 김동훈, 김원태, 박명익, 박채길, 박태웅, 송병열, 신준철, 안덕수, 유성준, 이강훈,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등산회의 2023년 망년회는 이른 아침에 등산회장이 10여 년만의 폭설로 산행은 불가하니 산행 대신 오후 1시 방배동 주꾸미집에서 식사하자고 하여 흥분한 마음으로 참석했다. 김동훈, 이석훈 등 동기들이 선물을 나누어 갖고, 회장은 만년 교장(여학생 대표

단) 김귀분 선생님 감사 표시로 아이젠을 선물했고, 떠나는 이용규 회장의 인사말과 신임 신준철 회장의 내년 등산회를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안덕수 총회장의 총회 활성화 방안을 듣고 이용규 회장이 참석한 모든 회원 20명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64경영 등산회의 끈끈한 우정을 더욱 다져 가는 시간이 됐다. 주꾸미 비빔밥, 고등어구이, 피자과 함께 막걸리 한잔은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산행에 참석하자는 각오와 함께 무르익은 대화의 촉매 역할을 했고 신임 신준철 회장의 서슴없이 회장 추대 제의를 받아준것에 대해 모두가 감사함을 표시했다. 언제나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등산회는 이날 20명이 참석하여 지난 한해를 무사히 보낸 것을 축하했고 새해에도 더욱 활성화된 모임을 갖자고 다짐하면서 망년회를 마쳤다.



망년회

## 백수회 북한산 자락길 걷기 ●●●

- 일시 : 2024년 2월 17일(토)
- 참석자 : 김광수, 김현희, 박명익, 박채길, 신준철,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최종욱

설날이 일주일 전에 지나고 벌써 카톡에 봄 느낌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세월을 너무 재촉해서 보내려 하는 것 같기도 하다. 매일 하루를 좀 더 알차게 보내면 느긋하게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여 좋은

려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요즘, 봄을 만나면 헤어져야 하고 여름이 밀려오고 긴 여름이 오래 머무르는 계절이 되어 사계가 뚜렷하지 않은 듯하다. 이경희 대장은 방학을 1월 중 통보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비공식 모임형식 아닌 정규 모임같이 백수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니 혹시 겨울 사고라도 발생시 공식 책임 회피용(?) 방학이었나 생각도 된다. 아무튼 방학이 끝나고 신규 코스 개발을 완료한 첫 둘레길 산책은 모처럼 두 자릿수 11명이 참가하여 대성황이었고 전철 홍제역 1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12번을 타고 작은 버스를 가득 채운 채 북한산 자락길 입구에서 내려 데크길을 걷다 보니 옛날 판잣집 등 서민 주택을 헐고 말끔히 정리된 아파트들이 하얗게 단정히 서 있는 위쪽 둘레길, 그것도 데크로 만들어진 길들은 잔가지 사이로 보이는 아파트들이 정다워 보였고 전망대에서 멀리 보이는 산 능선과 봉우리들이 안산에서 보던 전망과 엇갈렸던 모습에 대해 팔각정 아래에서 간단한 차를 마시면서 하나 같이 코스가 좋았다고 개나리, 아카시아 필 때 적어도 두 번은 다시 오자고 건의했다. 내려오면서 옥천암을 앞에 두고 세검정에서 흘러내린 홍제천 부근에서 버스를 타고 광화문 서촌에서 밀려드는 점심 손님 때문에 30여 분을 늦게 먹는 유니자장과 만두를 곁들인 소주와 함께 순식간에 해치우고 즐거운 산행을 마무리했다.



북한산에서



## 백수회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양재 시민의 숲까지 ●●●

- 일시 : 2024년 2월 24일(토)
- 참석자 : 김광수, 김한희, 박명익, 박재길, 송병렬,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최종욱, 홍현목

정월 대보름날 백수회원들이 아침에 모임에 참가하겠다고 댓글을 달더니 근래 가장 많은 인원인 14명이 모였다. 코스가 좋아선지 평소 고정 참가자 이외 새로운 얼굴들이 대거 모여서 신논현역에서 경부고속도로 옆길을 따라 걸었다. 가는길에는 아직 녹지 않은 잔설이 군데군데 보였고 바람까지 불어서 옷깃을 파고드는 추위가 봄날이 찾아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준비해온 보름에 먹는 부럼으로 땅콩을 가져오고 과일, 과자 등 제법 알뜰하게 차려진 먹거리들로 새참을 차와 함께 먹고 양재 시민의 숲을 걸어 점심때는 뽕해장국과 양곱창 해장국에 막걸리로 성대하게 대보름 오찬을 즐겼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양재 시민의 숲까지

## 입학 60주년 기념 모교 방문 행사 ●●●

- 일시 : 2024년 3월 2일(토)
- 참석자 : 강동식, 고병선, 고충효, 권영기, 김건수, 김광수, 김동훈, 김상규, 문익언, 박명익, 박재진, 박재길, 박태웅, 신준철, (안덕수), 유명식, 유성준, 이강훈, 이석훈, 이용규, 정원교, 최수호, 최양섭, 홍현목, 현봉길, 황석희

1964년 甲辰년 3월 2일 입학한 이후 60년 만인 2024년에 우리는 다시 교정에 모였다. 국민 소득 100달러 때 입학, 이제 4만 달러 소득과 10대 강국이 된 지금,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와 팔순의 노인이 된 나이답지 않게 장년의 건강으로 패기 있게 살아서 돌아왔다. 총참가자 신청은 171명, 행사장 좌석 부족으로 일찍 마감한 숫자이고 그중에 경영대 64학번은 26명이 참석했다. 첫 애기능 교양학부 교사에서 1년간 전교 입학생들이 함께 교양교육을 이수하고 2학년 때 본교에서 수업한 1세대의 64학번 동기들은 남다르게 상호 친목을 이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시절이었다. 6.3사태, 휴교령 등 유달리 많은 풍파 속에서 학업을 마치고 사회 각 부문에서 정의를 실천해온 용사들은 입학 30주년 행사 때 보다 확장 증축된 SK미래관, 경영관, 백주년기념관, 지하 캠퍼스를 재학생 홍보대사인 '여울'의 안내로 돌아보고 아직 찬바람과 함께 추위가 미적거리는 날씨중에도 훈훈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까지 따뜻해졌고 이어진 만찬과 함께 경과보고시 64학번 동기 중 한 분이 10억 원을 모교에 찬조한다는 소식과 함께 다음 입학 70주년 때 다시 만나자고 다짐하면서 여흥과 함께 마감된 방문 행사였는데 '갑진(甲辰)년'은 우리에게 여러 해 중 가장 '값진' 한 해가 된 것 같다.



입학 60주년 경영대 동기들과



## 70 회장 한부연 / 총무 정균화

### 2월 삼목회 모임 ●●●

경영70 동기회에서는 매달 셋째 목요일에 열리는 삼목회 모임을 지난 2월 15일 역삼역에 위치한 가시리에서 가졌다. 18명의 동기가 모여 맛깔난 남도 음식과 다양한 이야기를 즐겼다. 우리 동기는 18과 짙긴 인연을 맺고 있다. 봄-가을 나들이때 대부분 18명이 함께 해 왔다. 올해는 마의 18벽을 허무는 것이 동기회의 목표다. 삼목회 식사 후에는 당구 모임을 가졌으며 10명의 동기들이 공놀이를 즐겼다.



삼목회

## 72 회장 최성진 / 총무 류병기

### 신년 하례식 ●●●

경영72 동기회 신년 하례식을 1월 18일 청계산 원터골 소담채 식당에서 20명의 동기들이 청계산 산행을 한 후, 신년을 맞아 건강한 한해를 기원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경영72 동기회는 30년 동안 매년 신년 모임을 산행 행사와 함께 해왔으며 매년 40명 가까이 모였으나 이제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신년 하례식

## 73 회장 현기춘 / 총무 유장근

### 부부동반 베트남 여행 ●●●

경영73 동기회는 작년 12월 3일~7일 3박5일에 걸쳐, 대학 입학 50주년과 고학 나이가 된 것을 기념해서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단체여행을 다녀왔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총 42명이 참가했는데 미국에 사는 장상용 동기 부부는 먼 거리를 마다하고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주었다.



부부동반 베트남 여행

### 73학번 동기회 신년 교례회 ●●●

경영73 동기회는 금년 2월 21일 신년 교례회를 가졌으며 이 모임에 동기 32명이 참석했다. 사전 행사로 작년 12월에 다녀온 '인생 70년, 교우 50년' 베트남 단체여행의 동영상을 시청했고, 이어서 재무 현황 등 회무보고를 마친 후 현기춘 회장의 '손자병법과 인생 10계' 특강을 들었다. 만찬이 진행되면서 참석한 모든 동기들이 차례로 근



신년 교례회



황과 덕담을 발표하였고 모든 동기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즐거운 교례회를 마무리했다.

## 74 경영회장 장항덕 / 사무총장 구자형

### 경영74 11월 남산걷기 (남산클럽회장 : 한호석) ●●●

· 일시 : 2023년 11월 25일 (토)

이날은 특별히 오후 3시 30분에 대한극장 앞에서 만나 구자형 총장의 출발 신호에 따라 남산둘레길 걷기를 시작했다. 물론 경영74 2023년도 송년회까지 겸해서인지 많은 동기들이 참석했다. 동기 26명이 함께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산둘레길을 거의 2시간 정도 걸었다. 특별히 멀리 평택에서 와준 정환영 동기, 수원에서 온 김지섭 동기, 용문에서 참석해준 이덕수 동기에게 감사드린다. 특별히 적지 않은 식사비를 반분해주신 장항덕 동기회장과 우갑준 수석에게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낸다. 2023년은 12월 1일에 있는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만 남겨두고 있으며 내년 6월 초 입학 50주년 및 칠순 기념 일본 북해도 해외여행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헤어졌다.



11월 남산걷기

### 경영74 2월 남산걷기 ●●●

· 일시 : 2024년 2월 3일 (토)

오늘은 10명이라는 적지 않은 동기들이 모였다. 날씨가 춥지 않아 트레킹하기에 참 좋았다. 트레킹을 마치고 여느 때처럼 평래옥으로 가 빈대떡, 편육에 막걸리와 소주 한잔씩 정답게 마셨다. 특별히 오늘은 현 동기회장과 전 동기회장들, 74학번 전체 동기회장이 참석하여 좋은 시간을 보냈으며 지난번에 상을 당했던 손정윤 동기가 문상에 감사를 표하며 밥값을 내주어 감사했다. 또한 6월 2일 일본 홋카이도 여행에 대해 구자형 사무총장의 간단한 설명도 있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하거나 일부 동기들은 당구장으로 향했다. 다시 한번 동기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2월 남산걷기

### 경영74 3월 남산걷기 ●●●

· 일시 : 2024년 3월 2일 (토)

오늘은 언제나처럼 첫째 토요일 9시 30분 우리 동기들은 총무로 대한극장 앞에서 모여 남산 둘레길을 향했다. 날씨가 갑자기 춥고 연휴 주말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상당히 적은 인원이 모였다. 대한극장 앞에서 한옥마을에서 인증사진 한 컷 찍고 옛 안기부-남산순



3월 남산걷기



한도로-국궁장-국립극장-순환도로로 쪽 따라올라 가보니 멀리 한강이 보였다. 남산에서 보이는 서울 하늘이 청명해서 그런지 서울이 아름답게 보였고 남산타워가 선명하게 보였다. 남산 정상을 지나 4월의 개나리와 벚꽃을 상상하면서 늘 들르는 충무로 어느 냉면집으로 향했다. 2층 한구석에 자리하고 막걸리와 소주를 시키고 빈대떡과 편육을 주문했다. 한호석 남산회장의 건배 제의로 첫 잔을 들이키고 전체 74학번 조군환 동기회장의 건배 제의로 또 한 잔 들으키니 분위기가 좋아져 여러 순배를 들이켰다. 요즘에 모임하면 화두가 건강과 놀이문화다. 이후 구자형 총장의 맺음으로 모임을 마무리했다. 다가오는 4월의 화려한 꽃의 향연이 지금부터 기다려진다.

## 76 경영회장 장영린 / 경영총무 김덕만

### 경영76 송년모임 및 정기총회 (글 : 총무 김덕만) ●●●

경영76 동기회는 2023년 11월 23일(목) 오후 6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오크우드호텔 5층 오크레스토랑에서 송년모임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모임 외에 갖지 못했던 전



장영린 회장



김덕만 총무



송년회

체 송년모임을 3년 만에 재개했는데 28명이 참석하여 와인과 함께 맛있는 뷔페 음식을 즐기며 담소를 나눴다. 1부 식사에 이어 오후 7시부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덕만 총무의 개회 선언 후 문덕식 회장의 지난 2년간 동기들의 협조와 소모임인 골프회(회장: 임완순), 산우회(회장: 조구휘), 기우회(회장: 장영린)에 대한 감사 인사말

이 있었고, 총무의 2023년 활동 및 회계보고가 진행됐다. 이어서 2년 임기의 신임회장단 선출을 통해 기우회 회장인 장영린 동기를 만장일치로 차기 동기회장(임기 2024.01.01~2025.12.31)으로 추대했고, 총무는 김덕만 동기가 1년 더 하기로 했다. 신임 장영린 회장은 동기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동기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회장단 선출을 마치고 동기회 단합과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소모임 활성화, 해외여행 추진, 2026년 입학 50주년 모교방문 준비 등)이 채택되고, 연회비(10만 원)를 납부했지만 송년회 및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동기들에게 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새해에는 소모임 활동 등 동기 간 더욱 화합하고 경조사에 적극 참여하며 모교의 발전에도 관심을 갖기로 했다. 이날 모임을 위해 각각 100만 원을 찬조한 이 범 동기와 문덕식 회장(2022년~2023년 경영76 회장 역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를 보내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모임을 마쳤다.

## 79 회장 이상현 / 총무 오성호

### 쿠팡히말 EBC(Everest Base Camp) 트레킹 기행 ●●●

우리가 어느 별에서 왔건 지구별에 소풍와서 꼭 가보고자 하는 몇 군데의 버킷리스트를 꼽는다면 그중에 단연코 Everest(해발 8,848m)는 있을 것이라. 직접 登頂을 하는 프로 산악인이 아니라면 Base Camp라도 가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것이다. 2019년에 가고자 계획했던게 코로나19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이번 기회에 해조여행사의 도움으로 진행했다. 멤버의 변동이 있었지만 서학석 단장이 중심이 되어 10명(서학석, 오성호, 허만길, 박천용, 김명국, 김정관, 정현채, 현지 합류한 박재면 등)은 서로 격려하며 사전모임과 훈련을 통하여 결속을 다지기를 바란. Sagarmatha National Park에 위치한 '대지의 어머니(네팔어로 Sagarmatha)'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에



베레스트는 영국인 탐험가의 이름을 딴 것이라 하니 아이러니하다.

10월 30일 -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우리는 नेपाल의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1,380m)에 저녁 늦게 도착하여 친구인 박재면 목사와 부인 김미영 여사의 마중을 받았다. 곧장 간 곳은 카트만두의 하얏트호텔. 다음날의 EBC이동을 위해 짐정리와 이른 잠자리를 가졌다.

10월 31일 - 다음날 아침식사 후에 관광버스로 140km의 거리를 포장과 비포장이 섞여 있는 절벽과 계곡길(해발 1400~1700~400m의 좁은 2차로 구간)을 따라 8시간 가까이 운행하여 도착한 곳은 라메창. 버스의 속도제한이 시속 20~30km이기에 거의 하루 종일 도로 위에서 시달림을 당해야 했다.



EBC 트레킹

11월 1일 - 라메창에서 숙박 후 새벽 4시에 일어나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기상 상태에 따른 비행 여부를 확인하고는 18인승의 프로펠러 비행기에 올라 40여 분간의 비행 후에 루크라 공항(2,840m, 텐진-힐러리 공항이라고도 함)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를 하고 트레킹 1일 차의 일정을 소화시키기 시작했다. 팍딩(2,610m)까지의 8km구간을 약 3시간에 걸쳐 걸으며 첫 위밍업을 시작했다.

11월 2일 - 트레킹 2일째, 팍딩에서 출발하여 몬조(2,835m)에서 점심 후에 남체바자르(3,440m)까지 11km구간을 6.5시간에 걸쳐 올랐다. 남체는 일정 중에 있는 가장 큰 마을로 각종 상업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어 모자란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고, 마을을 둘러싼 콩데(6,093m)와 탐세르쿠(6,623m)봉의 하얀 눈을 구경할 수 있었다.

11월 3일 - 트레킹 3일째, 남체에서 출발하여 일본인이 세웠다는 에베레스트뷰호텔(3,880m)에서 차를 마시며 에베레스트, 로체, 아마다블람 등 히말라야의 파노라마를 감상한 후 캉중마(3,550m)까지 6km구간을 4시간 만에 도착했다. 이때부터 고산증 적응을 위한 준비가 되고 있었다. 가파른 설산 콩데는 우리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11월 4일 - 트레킹 4일째, 캉중마에서 텡보체(3,860m)를 지나고 디보체(3,820m)를 지나 팡보체(3,930m)에 이르는 10km구간을 5.5시간에 걸쳐 걸었다. 이 길에서는 멀리 보이는 에베레스트 정상(8,848m)과 로체(8,414m), 아마다블람(6,856m)을 보며 아름다운 쿨부히말라야의 트레킹 코스를 즐겼다. 특히 아마다블람봉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으로 안나푸르나의 마차푸차레, 알프스의 마테호른과 더불어 세계3대 美峰으로 불리운다 한다. 그 옆의 캉데카봉은 보기에 따라서 '노아의 방주'나 '스핑크스'를 연상케 하는 매력을 뽐내고 있었다.

11월 5일 - 트레킹 5일째, 팡보체에서 소마레를 지나 텡보체(4,410m)까지 9km구간을 6시간에 걸쳐 걸었다. 아마다블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마을이면서 고산증에 적응하기 위해 하루 더 머물러야 하는 곳이다. 마침 이 구간을 오르는 도중에 고산증세에 노출된 한국인 젊은이가 가이드와 함께 하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고산증을 적응하기 위해 준비한 약물 복용과 함께 컨디션 조절에 신경써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저녁시간에는 헤드랜턴을 켜고서 Dingboche Bakery를 찾아 박천용이 협찬하는 달콤한 케이크와 음료에 매료되기도 했다.

11월 6일 - 트레킹 6일째, 텡보체에 고소적응을 위해 머물면서 나카르상(5,073m)에 오르며 컨디션 체크와 호흡조절을 하면서 텡보체로 내려왔다. 오후 시간에는 EBC구간의 유명한 커피숍인 '4410 Caffe'에서 커피와 음료를 즐기고, 모친 기일을 맞은 김정관의 제



사 봉양 후 저녁 시간에 한 번 더 방문하기도 했다.

11월 7일 - 트레킹 7일째, 덩보체를 떠나 투클라(4,620m)에서 차와 점심을 한 후에 로부제(4,910m)까지 10km구간을 6시간에 걸쳐 걸었다. 좌측의 출라체峰과 정면의 美峰 푸모리(7,165m)를 보면서 빙하 계곡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견뎠다. 여기에서는 남은 시간을 이용해 1시간가량 빙하와 크레바스가 산재해 있는 지역을 일부 둘러보았다.

## 문화모임(KUCC79) 17차 소식 ●●●

- 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 장소 : 오!재미동 (충무로역內 B)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영화 '에덴의 동쪽'을 통해 인간의 양면성과 원죄,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이상향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봤다. 우리들도 함께 살아가면서 갈등의 고리가 풀렸든 맺혀 있든, 세월이 흐른 뒤에 되돌아보면 경직된 사고와 하찮은 것에 매달려 진짜 소중한 것을 잘 모르고 지내는 것은 아닐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신 많은 동기들에게 감사하며 특히, EBC트레킹 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임에 참석하신 서학석, 박천용, 허만길 동기의 노고에 특별히 고맙게 생각한다.

## KUPGA79 납회 ●●●

- 일시 : 2023년 11월 26일(일) ~ 28일(화)
- 장소 : 다산베아채CC

남도 답사 1번지라 칭하는 문화의 마을 강진, 그곳 강진만 바닷가 언덕에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27홀 골프구장에서 납회를 가졌다. 11월 말 수도권의 영하의 날씨를 피해 영상 14~5도의 포근한 날씨 속 천혜의 자연경관과 비록 초록으로 도색은 했으나 푸른색의 페어웨이와 벤투그라스의 그린을 갖춘 다산베아채CC의 2박3일 여정은 모두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우천의 기상 예보까지도 우리들의 열정을 느끼고 비껴가는 포근한 기후 속의 행운의 납회 라운딩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남도의 맛 기행으로도 추억으로 남는 여정이었다. 어언 20년의 구력을 자랑하는 KUPGA79 모임이 알차고 풍성한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모임이 되게 노력하는 김성태 회장과 항상 멋진 장면을 기억 속에 남게 강진 앨범을 만들어준 안희준 작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납회모임

## 축구모임(KUFC79) ●●●

-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 장소 : 더 리버사이드호텔 5층 토파즈 홀

15쌍의 부부를 비롯하여 38명의 79경영 축구 모임인 KUFC79 멤버들이 송년회를 가졌다. 조직의 발전과 가정의 행복과 회원들의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79경영 축구 모임은 3세대에 걸치는 가족 모임과 더불어 송년 행사는 부부를 위한 모임으로 호텔에서



KUFC 송년모임



진행하기를 2년째. 매년 클래스가 높아지고 있음에 스스로들 놀라고 있다. 이날은 박종배씨가 초대 한 오키리나 연주자의 공연, 79동 기획의 카펠라 중창단의 노래와 지휘자의 독창까지 귀를 감미롭게 하는 문화공연으로 한껏 즐거움의 경지에 올랐다. 이종훈 동기의 3부 순서 사회로 진행한 게임과 노래방 경연은 부부들이 나와 듀엣으로 노래하면서 즐겼다. 무엇보다 부인들이 모두 나와 춤을 추면서 합창한 '남행열차'가 단연 최고였다. 이 행사를 위하여 애쓰신 이상현 회장과 이영태 사무총장, 서종산, 이청기, 김택곤 등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4 甲辰年 청룡의 해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

## 문화모임(KUCC79) 18차 소식 (주제 : 추억의 LP여행) ●●●

- 일시 : 2023년 12월 11일(월)
- 장소 : LP Bar 'Traffic'

2023년 송년모임을 투박하고 올드한 느낌을 주는 압구정동 LP Bar에서 진행했다. 맛있는 와인을 마시면서 회원들, 부인들과 추억이 있는 노래들을 즐겁게 감상했다. 때마침 내리는 겨울비 속에서 감성을 일깨워 주는 추억의 음악이야말로 마음의 얼룩을 지워 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는 감성적인 분위기가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했다. 약 2시간 반 동안의 음악을 감상하고 근처 '원조초가집'에서 맛있는 식사와 담소를 나누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다. 내년에는 더 풍부한 문화모임을 즐기기로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성탄과 송년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과 함께 귀가했다.



추억의 LP여행

## 경영79 송년회 ●●●

- 일시 : 2023년 12월 27일(수)
- 장소 : 서울교대 사거리 일식집 '해담'

우리의 2023년도 송년회가 있었다. 복잡한 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교대역 근처였지만 생각보다는 덜 붐빈다는 느낌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추위가 잠시 쉬는 사이에 시원하게 느껴지는 찬바람이 오히려 편안했다. 잦은 만남이어도 할 말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거대한 대방어 두 마리를 완전히 분해해서 제공되는 겨울 방어의 기름 오



송년회

른 맛은 많이 먹기에 느끼할 정도였지만 좋은 회로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었다. 적당히 취기가 오르고 서학석 회장의 "건강하자!"는 인사말에 이어 "이기자(이런 기회, 자주 갖자!)"로 건배를 제의했다. 이어서 그동안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역임하면서 동기획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던 추경호 동기는 곧 퇴임과 더불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게 됨을 알리며 "이기자 아자아자(이런 기회, 자주 갖자 아주 자주 아주 자주!)"로 건배사를 하여 좌중을 더욱 즐겁고 흥겹게 하였다. 이어서 김성태 골프 회장, 이상현 축구회장, 장덕윤 축구회장, 이성훈 당구회장, 조성진 문화모임 총무가 나와서 올해의 한 일들과 내년에 기획하고 있는 행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표하고 건배사를 제의했다. 다음에는 고대 교수로 있다가 작년 9월에 롯데그룹 인재개발원장으로 스카웃 된 김희천과 최근 아들을 결혼시킨 양상문, 내년부터 2년간 고대 79학번 전체 산악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박천용의 인사말이 있었다. 기분이 좋아 많은 주류들을 들이켰기에 학창 시절처럼 힘들어한 동기들이 몇몇 있어서 걱정될 지경이



었으니 역시 편하고 믿을만한 건 79동기들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고대 캘린더와 가을 속초행사에 썼던 수건, 스카프를 송년 선물로 제공했다. 그동안 동기회와 소모임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한 임원진들과 참여하여 자리를 빛내준 동기들에게 감사하린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올해를 보내고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고대 경영79! 굳세어라! 굳세어라! 굳세어라!

## 문화모임(KUCC79) 19차 소식 (주제: 양희창과 고전미술 감상) ●●●

- 일시 : 2024년 2월 2일(금)
- 장소 : 오재미동(충무로역B1)

2024년 신년모임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역사와 철학을 시각화한 고전미술을 시대적 흐름과 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익숙한 주요 천재 예술가들의 대표적인 작품과 특별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미술의 가치는 아름다운 작품이기를 넘어 그 시대를 살아낸 인간들의 구체적인 삶과 주요 정신을 화가들이 타협과 독선중에서 선택한 결과물이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작품별로 더 깊이 있는 설명을 듣지 못한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취미 이상의 훌륭한 지식과 전문적 경지에 이른 양희창 동기의 노력에 감탄하며, 불편한 몸 상태에서도 동기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준 양 동기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한다.



미술작품을 설명하는 양희창 동기

## 2024 신년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

- 일시 : 2024년 2월 19일(월)
- 장소 : PJ호텔 3층 베라홀 (을지로4가역 근처, 이준정(정외79) 대표이사)



이상현 회장

2024년 경영79 동기회 신년총회가 열려 회장 이취임과 2024년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50명이 참석한 이날 모임은 오성호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학석 회장의 “건강하자”는 인사말씀으로 이어졌다. 오 총장의 2023년 결산보고와 승인, 김상해 감사의 감사 보고가 이어지고 지난해 활동 보고와 2024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1년간 수고한 운영진에 대한 포상과 KUCC79회장직을 맡았던 이상현과 당구회 사무총장이었던 서종산에게 그간의 수고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다음으로는 경영79 6대 회장으로 7년간 봉사해온 서학석 회장은 차기회장으로 이상현을 三顧草廬한 추대과정을 소개했다. 이상현 차기 회장은 만장일치로 추대와 승인이 이루어지고 수락의 인사 말씀을 했다. 이어 서학석 전임회장은 7년 임기 동안을 회상하며 이임사를 했고, 이상현 신임 회장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취임사를 했다. 이어 7년 동안 동기회의 발전에 헌신하며 특히 소모임 활성화에 기여한 서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소모임의 대표들은 서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꽃다발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의결사항으로 제안된 회칙 개정에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전임회장들로 구성되는 고문단 회의와 소모임 회장단과 함께하는 운영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설치했다. 동기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의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2024 신년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기념



하기로 하며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어서 소모임 회장(골프, 등산, 당구, 축구, 문화)들은 단상에 올라 2024년 사업 계획들을 발표하며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업을 진행할 뜻을 비추며 동기들의 박수를 받았다. 맛난 와인과 스테이크로 화기애애한 자리가 이어지며 동기들 간의 교류와 우정을 나누는 하루가 되었다. 올 한해 청룡의 해에 양기를 충분히 받고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 80 회장 권현준 / 총무 하만우

### 전체모임 ●●●

- 가을 문화제 : 11월 4일(토), 재즈런치에서 곧 떠나보내야 할 가을을 아쉬워하며 43년간 우정을 쌓아 온 동기생과 그 옆지기 40명이 재즈런치에 모여 한국 재즈의 최고봉 스완김의 사회로 재즈를 즐겼다.
- 경영대학 교우의 밤 : 12월 1일(금), 코엑스 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경영대학 교우의 밤 행사에서 경영학과 10명의 동기들이 즐거운 시간을...
- 동기회 총회 : 2월 2일(금) 느린마을에서 열린 정기총회 겸 신년회에서 35명이 참석하여 지난해의 아쉬움과 신년의 기대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동기회를 이끌어 갈 신임 동기회장으로 권현준 동기를 추대하였으며 지난 2년간 동기회를 보다 튼튼하게 다져온 정창식 전임 동기회장에게 동기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신임 집행부로는 권현준 동기회장과 함께 박상협 부회장, 정규언 감사, 하만우 사무총장이 앞으로 2년간 동기회를 위해 수고할 예정이다.



하만우 총무



동기회 총회

### 호산회(경영80 산악회) ●●●

- 북한산 숨은벽능선 산행 (11월 11일)

아침에 일어나니 체감온도가 영하란다. 추운 날씨지만 대중 입과 집을 나섰다. 오늘은 뒤풀이까지 20명의 동기들이 참가 신청을 했다. 중간에 이기현이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왔지만 근교 산행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역사적인 날이며 호산회 등반 역사 중 가장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숨은벽능선을 간다. 숨은벽능선은 북한산의 대표적인 비경코스인 인수봉과 백운대의 사이에 마치 숨어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생전 처음 가는 코스이고 다소 긴장해야하는 코스도 있다고 하여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약속 장소인 불광역 4번 출구로 향했다. 대부분의 동기들이 일찍 도착했으나 담근 술을 챙겨오느라 먹는 약 전부를 깜빡 놓고 온 김태술이 3분 늦게 도착했고, 시간을 착각한 월천대사 최윤식은 택시 타고 국사당으로 직접 오기로 해 '시간은 돈이다'라는 격언을 상기시켜 주었다. 만원 버스를 타고 은평뉴타운을 돌고돌아 효자 2동



북한산 숨은벽능선 산행



까지 이동, 밤골탐방지원센터에서 몸을 풀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처음에는 둘레길 정도 걷는듯했으나 곧 나무뿌리와 바위가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경섭이 일찍 하산해야 해서 적당한 장소를 골라 중풍을 했다. 김밥과 빵, 컵라면, 과일 등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현경섭과 헤어져 본격적으로 숨은벽능선으로 향했다. 점점 암벽이 많아지며 중간중간 철봉을 잡고 오르는 급경사 암벽을 정신없이 올랐다. 마당 바위전 이름 모를 바위에서 절벽 아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니 아찔한 장면들이 연출됐다. 경험 많은 최승석과 김 건이 겁많은 이창우와 채교설을 바위 끝으로 데려가 사진을 찍게 하던 장면은 재미로 기억되어 김 건의 사진이 기다려진다. 다시 능선을 따라 암벽을 하나둘 오르니 커다란 바위 위에 평평한 공간이 나왔다. 이곳이 마당바위라네. 거기서 숨은벽능선을 바라보니 좌로는 인수봉, 우로는 백운대, 그 사이에 좁다랗게 놓여진 바위능선이 숨은벽능선이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개인 사진, 단체 사진을 여럿 찍으며 주위 경관을 감상했다. 아래로 해골바위, 인수봉 옆의 안테나봉, 그 옆에 영장봉... 끝없이 이어지는 봉우리들이 웅장하게 보였다. 숨은벽능선의 하이라이트인 좁다란 바위능선을 따라 몸을 낮추고 나아가니 크고 가파른 바위가 나온다. 오른쪽은 절벽, 좁은 능선을 지나왔던 길을 다시 보니 더욱 아찔했다. 저 길을 지나온 건가? 눈앞에 숨은벽능선 정상 부근의 바위는 경사가 7~80°로 되어 보였다. 장비가 있어야만 오를 수 있다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능선 끝 오른쪽으로 돌아 하산한다.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싶어 잠시 뒤를 돌아보니 바위는 묵묵히 서있다. 내려오는 길은 징검다리 돌을 밟고 지나는 기분이었다. 커다란 몸체에서 떨어져 나온 디딤돌들은 어떤 사유로 그곳에 있게 되어 내게 밟히게 되었을까? 생각할 수 없는 영겁의 시간의 결과물이라. 다시 출발 장소인 밤골로 내려와 식당이 있는 효자비까지 걸어 뒤풀이 장소인 효자정 식당으로 향했다. 오리백숙이 맛있었다. 반찬으로 열무김치도 몇 번을 더 달라고 할 정도로 좋았다.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도 친절하여 이런 분들이 돈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현준 동기가 뒤풀이 비용 일부를 찬조하여 많은 인원이 부담 없이 비싼 오리백숙을 먹을 수가 있었다. 현준아 고맙다!

이번 산행은 경험자들의 도움이 컸다. 서 정, 정규언, 최승석 3명의 고문들과 날다람쥐 김 건의 주요 포인트에서 리딩, 사진 그리고 경사면을 오르는 요령을 가르쳐 주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고, 미국에서 날아온 박 훈, 모처럼 참석한 양후석, 경험 많은 김범중, 이창우, 이제 등린이(등산초보)를 벗어난 이현우, 한종원, 백치석, 최윤식, 김태술, 채교설, 일찍 간 현경섭, 뒤풀이 담당 임규화 모두 고맙고 이번 산행을 위해 많은 애를 쓴 박 회장과 최병수 산악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 2023년 아차산-용마산 송년 산행 (12월 9일) ●●●

어느덧 12월, 올해 마지막 호산회 산행은 아차산이다. 어린 시절 산 이름과 관련하여 들은 이야기는, 조선 명종 때 점을 잘 치는 홍계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왕이 그를 불러 쥐를 넣은 궤짝으로 그의 능력을 시험했는데, 그가 그 숫자를 맞추지 못하자 사형을 명하였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암쥐의 배를 갈라보니 새끼가 들어있어서 ‘아차’하고 사형 중지를 명했으나 이미 홍계관은 죽었고 이후 사형이 집행되었던 산을 아차산이라고 불렀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였다. 겨울 날씨치고는 포근하여 옷을 어떻게 입을까 고민하다 일단 여벌 옷을 가져가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는 행동을 반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약속 장소에 대체로 일찍 도착했고 서로의 안부를 나누다 채교설이 어부인의 회갑 생일을 깜빡하여 참가 신청했다가 ‘아차’하며 못온다고 연락이



아차산-용마산 산행



왔다. 교설아, 죽다 살았구나.

최병수 산악대장의 인솔하에 아차산역을 출발, 기존코스가 아닌 고구려 정방향으로 가는 길이 바위를 밟고 가는 구간이 많아서 등산화의 접착력을 느끼는 재미가 있었다. 지난달 다녀온 숨은벽능선 코스에 비해 평탄하여 숨도 덜 차고 다리 후들거림도 덜했다. 고구려정을 지나 소나무 숲속 공터를 찾아 중풍을 했다. 김밥, 떡볶이, 순대, 빵, 과일을 서로 나누며 먹다 보니 배가 찼다. 냄새를 맡고 산고양이들도 다가왔지만 미안하게도 줄 음식이 별로 없다. 서둘러 쓰레기를 모으고 자리 정리한 후 다시 산행을 계속했다. 능선이 아닌 계곡 길을 통해 4보루 쪽으로 질러갔다. 단체 사진을 찍고 이제 용마산으로 넘어갔다. 아차산은 295m, 용마산은 348m로 오르막 내리막을 반복하니 용마산 정상이 보였다. 고구려의 기상인 용마산 정상석에서 사진을 찍으며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봤다. 하산길 역시 바윗돌을 밟으며 내려오는 나름 재미가 있었다. 어디를 밟을까 순간적으로 생각해야 했는데 몇 번 잘못 밟은 적이 있었지만 대체로 무난하게 재미를 느끼며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와 중곡동 주택가를 요리조리 지나 뒤풀이장소인 식당에 도착하니 뒤풀이 전문 임규화와 하행민 사무총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외줘서 고마워<sup>^^</sup> 주류와 비주류로 자리를 나누어 돼지갈비를 맛있게 구워 먹고 후식 냉면과 된장찌개로 마무리했다. 2차로 노래방에 가서 12월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를 준비한 서 정 고문의 자상함이 고맙게 여겨졌다. 모든 사람이 다 참 좋은 노래를 불렀다. 100점이 나온 사람은 1만 원을 내게하고 대신 집행부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게 했는데 준비한 선물이 거의 다 소진될 정도로 100점이 많이 나왔다. 노래방에서 나와 일부는 근처 카페에 가서 서 정 고문이 제공한 음료를 마시고 내년에도 계속될 호산회를 기대하며 집으로 향했다. 집에 오니 오늘 걸음수가 20,340걸음, 생각보다 많이 걸었는데 피로감은 덜하다. 내 체력이 좋아졌나?

금번 산행에도 정규언, 서 정, 최승석 고문들이 술선수범하는 도움을 주었고, 안전 산행을 리딩해준 최병수 대장, 2차 노래방비를 부담해주고 노래방 선물 등 아이디어로 재미를 더해주신 박 회장 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사랑하고 함께해 준 모든 동기들에게 감사하며 내년에도 더욱 알차게 건강하게 호산회와 함께 하자는 부탁을 드리며 올해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 2024년 안산둘레길 신년 산행 (1월 13일) ●●●

갑진년 새해 첫 산행지는 안산이다. 무악재를 사이로 인왕산과 마주하고 있는데 산의 생김새가 말의 안장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란다. 겨울 날씨치곤 포근한 편이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해 신년 인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양후석이 무릎이 불편하여 못온다고 하고, 이기승도 갑자기 집안에 초상이 생겨서, 오랜만에 온다던 강우영도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게 돼 못온다고 한다. 대신 하만우 신임 사무총장이 깜짝 참석했다.



안산 산행

서대문형무소 옆 공터에서 체조로 몸을 풀고, 줄지어 나무데크로 잘 꾸며진 안산자락길로 접어들었다. 난이도가 없어서 행렬길이



가 늘어지지 않아 진행이 빨랐다.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메타세쿼이아숲 앞 쉼터에서 중풍을 했다. 간단한 산행이라 먹거리 준비를 안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져온 음식들을 나눠먹으니 제법 배가 든든했다. 백치석이 먼저 가야 한다고 해서 중풍 후 헤어졌는데, 봉수대 옆으로부터 능안정 방향으로 가는데 갑자기 오던 길 되돌아갔던 백치석이 나타났다. 어찌된거지? 순간 멍했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물어 물어 찾아가다보니 여기까지 온거란다. 다행히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옆에 있어 잘 내려갔고, 차질 없이 일 잘했다는 후문이 있었다. 다시 인왕산을 바라보는 마지막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으려 옆 팀 남성에게 부탁을 했는데, 세 명의 여 산우를 동반한 그 남성이 사진을 찍다 말고 남자들만 드글드글한 우리 일행이 불쌍한듯 자신의 여 산우들을 빌려줄까요?라고 말해 전체가 폭소했다.

영천시장 옆 '반하는보쌈앤밥상'식당에서 뒤편이 전문 임규화가 벌써 자리를 잡고 있었다. 주메뉴인 보쌈이 맛있었다. 고기가 부드럽게 삶아졌고 시래기국도 적당히 간이 되어 좋았다. 모처럼 주당파들인 함덕식, 이기현, 현경섭, 하행민, 임규화, 하만우, 김범중, 한종원, 최병수, 최윤식 모두 주거니 받거니 낄낄대며 잘들 마셨다. 비주류 최승석과 이창우도 보는데 더 즐거웠다.

식당을 나와 커피를 마시려 했으나 장소가 여의치 않아 집으로 가기로 하고 작별 인사를 했는데 술이 부족했는지 주당들이 2차 장소로 이동하는 듯 했다. 그래~ 즐겁게 마시고 들어가라. 오늘 산행을 리딩해 준 최병수 산악대장, 맛난 과일과 바나나를 준비해 준 최승석, 함께해 준 동기들 모두 고맙고, 해외여행으로 불참한 박 회장, 학회가 있어 못 온 정규언, 선약으로 못 온 서 정, 돈 버느라 못 온 채교설, 무릎 아픈 양후석, 상을 당한 이기승, 광주 간 강우영에게 다음엔 꼭 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식당에서 일찍 가면서 동기들 커피값 하라고 금일봉을 주고 간 이현우, 뒤편이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도 참석회비를 성의껏 내준 백치석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호산회여, 영원하라!!

## 남산둘레길 (2월 24일) ●●●

매년 2월에 가는 남산둘레길, 충무로역에 친구들이 오전 11시에 모였다. 최근 눈이 많이 와서 아이젠과 스틱이 필요하다고 논란(특방)이 있었기에 여러 동기들이 아이젠, 스틱을 가져오고, 이진형은 오는 길에 스틱 하나를 사갔고 왔다. 열정이 고마웠다. 갑작스런 집안 사정과 감기로 3명은 못 오고, 9명이 반갑게 산행을 시작했다. 누군가가 등산에 빠지지 않는 서 정 고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하며 묻기도 했고, 감기 걸려 못 온 동기가 빨리 쾌차하길 바라며, 작년에 들어가 버턴 천년 타임캡슐, 남산 터널을 지나 둘레길 우측으로 돌아 걸었다. 길가에는 개나리가 쪽 이어져 있는 것을 보며 꽃피는 봄에 남산을 걷는 것도 운치가 상당할 듯 하다고 말했더니, 그때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말에는 걷기 힘들다고 최승석 고문이 이야기했다. 개나리꽃, 벚꽃 등으로 아름다운 남산은 서울시민들에게 축복이라고 이창우 전 대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둘레길로 쉬엄쉬엄 가는 코스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수가 남산타워로 올라 가자고 했다. 사모바위, 숨은벽도 가는데 이 정도는 산행이 아니라나... 남산타워에서 내려오면서 셋길로 빠질 예정이었는데, 멀리서 온 이진형이 4시에 판교에서 KTX를 타야 한다고 해서 오후 2시 30분 빨리 하산하기로 했다. 덕분에 포장된 길로만 걸어서 아이젠, 스틱은 꺼내 보지도 못하고, 특방 논란은 무색하게 되었다. 하산길에서 최윤식 화사회 회장의 라오스 이야기가 자주 들렸다. 나이는 숫자일 뿐 19금은 여전히 주요 관심 주제인것 같다. 의대 증원과 의사 파업이 남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의사 자녀를 둔 박상협 회장이 의료업계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을 듯했다. 뒤편이는 족발집에서 막걸리, 소맥을 하고, 근처 카페에서 마무리했다. 뒤편이에서는 현경섭이 다른 동기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결혼 이후 월급 통장을 와이프에게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야 하나, 믿자니 배가 아프



남산둘레길 산책



다. 커피, 음료를 희사한 박 회장에게 고맙고 같이 건강하게 '함산'한 동기들에게도 고맙다.

'함산'동기 : 이진형, 최승석, 이창우, 최윤식, 한종원, 현경섭, 이현우, 박상협, 최병수

## 골프모임 ●●●

2023년 마지막 골프 모임을 11월 7일 청평 마이다스밸리에서 16명의 동기들과 함께 즐겼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골프회 회장으로 열심히 수고한 권현준 회장이 내년부터 전체 동기회장으로 동기들을 위해 봉사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골프회장으로 김현우 동기를 추대했다. 그동안 고생한 권현준 회장, 정태익 총무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 81 회장 김현수 / 사무총장 신동훈

### 81동기회 신년회 및 송재현 개인 사진전 ●●●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 장소 : DH아트센터(대현회계법인 지하 2층)
- 행사순서 : 사진전 설명 - 만찬 안내 및 단체사진 촬영 - 만찬 시간 - 회장 환영사 - 건배 - 강의 - 개별인사 - 여흥 시간 - 단체 사진 촬영 및 귀가
- 참석자 : 고현균, 공 현, 공현무, 김경용, 김민호, 김상운, 김영민, 김영소, 김용철, 김재범, 김중대, 김중학, 김준기, 김현수, 노명환, 박대양, 박래형, 박만호, 박성용, 박종호, 박준보, 박진우, 박창수, 배흥기, 복진선, 손외태, 송백채, 송영선, 송재현, 안효상, 양성욱, 양준만, 우동석, 이상돈, 이상진, 이상표, 이상혁, 이석원, 이준근, 임동신, 임창범, 장 영, 정용석, 정재섭, 정희찬, 조홍균, 최재봉, 최효성, 황승하 (총 49명)



사진전 설명(송재현 동기)

## 84 경영회장 류기홍 / 경영총무 이순규

### 경영84 신년 하례회 ●●●

경영84동기회 팔사랑은 1월 17일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 하례회의 중요 안건은 신임 동기회장 선출. 코로나 기간을 포함하여 회장을 5년 동안 맡은 윤영원 전 회장이 사임을 공식화한 상태에서, 류기홍(대주회계법인 회계사)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류기홍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회장을 수락, 경륜과 식견이 묻어나는 멋진 취임사와 함께 입학 40주년 기념 행사 준비 및 팔사랑 기금 확충을 위해 100만 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팔사랑은 류기홍 회장 산하에 이종우 골프회장, 김준범 등산회장, 박태영 강남모임회장, 윤종선 강북모임회장 분과별 체제를 갖추었으며, 연중 일산모임회도 구축할 예정이다.



류기홍 회장



신년 하례회

##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1) · 학생대표 이예린(경영21)

### 신입 부원과 함께한 Dream Concert ●●●

11월부터 3월까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다른 한 해를 준비하면서 새내기과 정든내기 학생들에게 교우회를 알리고 교우 선배님과의 커넥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진하고 있다. KUBS LADIES 집행부는 새롭게 부원이 된 20기와 함께 하는 첫 활동으로 2학기 Dream Concert 행사를 진행했다. 2023년 11월 16일, 양지현(경영13) 교우가 <컨설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 아래 컨설팅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 조언과 함께 컨설팅 업계에서의 실무 경험들을 진솔하게 공유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이를 통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 진행하여 현장에 오기 어려운 학생도 참여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 클로징 행사 및 2024년 활동 계획 ●●●

2023년 Good Evening 프로그램 역시 클로징 행사와 함께 막을 내렸다. 11월 24일, LG-POSCO 경영관 쿠크홀에서 1년간 함께 활동한 멘토, 멘티들이 모여 간단한 식사와 함께 우수 활동 팀 시상 및 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멘티로 참여한 여학생들은 1년간 멘토링을 받으며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유익미한 만남들을 통해 진로에 대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곧 2024년 Good Evening 멘토-멘티 매칭과 함께 오프닝 행사도 계획 중이며, 뒤이어 2024년 1학기 Dream Concert에서도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선배 교우를 모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Good Evening 클로징 행사

### KUBS Ladies 창립 11주년 기념행사 개최 ●●●

12월 7일에는 압구정 '우향우'에서 11주년 행사가 열려 학부생 학생들과 선배 교우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진행됐다. 많은 선배 교우들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고, 경품 추첨과 여러 선물 증정 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즐거운 행사가 되었다.

현재 새학기를 맞아 21기 리크루팅을 진행 중이며, 새로운 부원들과 함께 2024년에도 학생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교우회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따뜻한 관심과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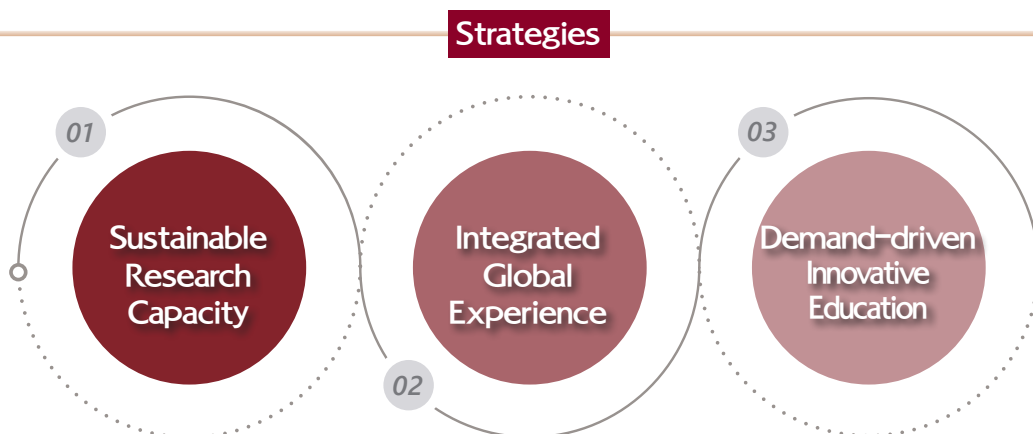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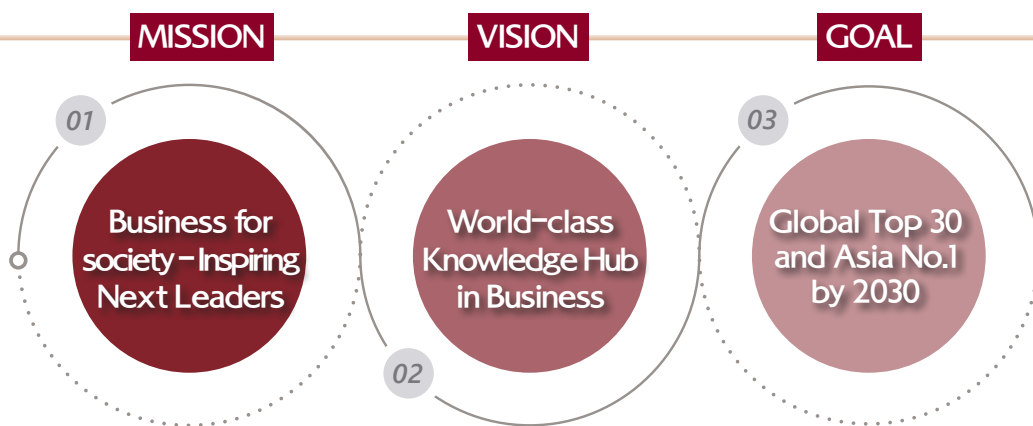
KUBS Ladies 11주년 행사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

2030년까지 **Global Top30, Asia No.1** 수준의  
Business School 달성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권수영, 박경서, 한재민 교수님 정년퇴임식

일시: 2024년 4월 28일(일) 오후 3시 장소: LG-POSCO 6층 안영일홀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아듀(adieu) 경영대학!”

## 권수영, 박경서, 한재민 교수 정년퇴임식

지난 2월 28일, LG-POSCO 6층 안영일홀에서 권수영 교수, 박경서 교수, 한재민 교수의 정년퇴임식이 개최됐다. 퇴임식에는 권수영 교수와 박경서 교수를 비롯해 김상용 학장 등 교수진과 교직원, 가족과 제자들이 참석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권수영 교수는 31년, 박경서 교수는 24년, 한재민 교수는 33년이라는 긴 세월을 경영대학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행사의 진행을 맡은 김광현 경영대학 기획부학장은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정년퇴임식을 거행하게 돼 후배 교수로서 큰 영광”이라며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권수영 교수는 회계학 분야의 선두 주자로, 한국회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뿐만 아니라 본교 경영대학의 학장과 경영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MBA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 재무 금융을 전공한 박경서 교수는 본교 기업경영연구원 원장, finance MBA 주임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본교 경영대학의 발전에 헌신했다. 이러한 학문적 전문성에 기반해 대외적으로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고려대학교의 위상을 높여왔다. 경영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한 한재민 교수는 IS 및 IT 전략 분야에서 활약했다. 교내에서는 본교 기업경영연구원 원장을 역임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자문위원 등 국가정책 자문활동에도 매진했다.

퇴임식사에서 김상용 학장은 “늘 앞장서 중요한 역할을 자처해온 세 교수님의 뜻을 이어 더욱 정진하겠다”며 “은퇴 이후에도 더욱 찬란한 여정이 이어질 것”이라며 응원

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학교법인 감사장 및 금메달 수여가 진행됐다. 이어 경영대학 감사패 및 꽃다발 수여가 진행됐다.

권수영 교수는 “정년까지 재직하는 교원이 전체의 40%도 안된다”며 “학문의 여정에서 만났던 수많은 스승과 제자 및 동료들을 비롯해 가족까지 감사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 교수는 “처음엔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렸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 주변 풍경도 들어오고 속도가 빨라져 어느새 32년이나 흘렀다”며 “이제 안암을 떠나지만, 마음의 고향 고려대 경영대학의 발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박경서 교수는 “원래 내성적이었던 제가 고려대에 와서 학부 시절부터 사람이 바뀌게 됐다”며 “배움이 즐겁다는 것을 뒤늦게 느꼈고 박사까지 하게 되어 이 자리까지 왔다”고 회상했다. 박 교수는 “금융위원이나 기획재정부 산하에서 일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많이 배웠다”며 “너무 학술적인 공부만 하지 말고 더 현실적인 국가 제도를 만들 기회를 찾으면 좋다”고 후배 교수들에게 조언했다.

이어 퇴임식에 참석한 경영대 교수들이 답사를 전했다. △이만우 명예교수 △박종원 교수 △박광태 교수 △박진관 교수 △김우찬 교수 △김중혁 교수 △유지송 교수 등 후배 교수들이 저마다의 감사하는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함께 전했다. 이후 사진 촬영 및 환송회가 진행되면서 행사가 마무리됐다.



## 퇴임사



정년퇴임을 하면서 드는 심정은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느낌입니다.  
처음에 달릴 때는 좌우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때로는 overpace를 해서 지치기도 했지만  
좀 더 참고 달리니 점차 풍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  
한 학기가 지나고 또 한 학기가 지나고 그렇게 3년, 5년, 10년이 지났고, 그다음부터 속도가 빨라져  
20년, 30년이 넘어 어느새 결승선에 다다랐네요.

그동안 고려대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고려대학교라는 학교 명성의 무게감에 더해서 훌륭한 학생들과 역량이 뛰어난 선후배 교수님들과 교류하면서  
학자로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고 사회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재직하는 동안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렘도 있습니다.

재임기간 동안 크고 작은 보직을 맡았습니다.  
부원장으로서 경영전문대학원으로서의 전환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승인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Global MBA, Finance  
MBA, Asia MBA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Asia MBA가 성사되도록 파트너 학교인 푸단대와  
싱가포르국립대를 열 번 정도 방문해서 가깝스로 합의를 끌어낸 것도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시행한 BK사업을 신청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었고, 유럽의 EQUIS 경영교육 인증을 준비해서  
fast track으로 인증받느라 전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영대 학장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미래의 리더를 양성한다는 미션을 설정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혁신적인 교육, 산업체와의 협업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혁신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융합형 인재양성과 창의력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개편과 플립트 강의를 개설하였으며,  
KUBS Futurum Lecture Series을 개설하여 세계적인 석학들의 강연이 연이어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산업체와의 협업으로는 글로벌기업에의 해외인턴십 파견을 확대하고 스타트업연구원에서의  
창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였습니다. 또한 LINC+ 사업으로 불린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배정받은 사업비로 창업지원서비스, 글로벌 산학협력프로그램, 국제현장실습 등을 지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1905년 이재학과에서 출발하여 1955년에 국내 최초로 경영학과를 개설하여  
언제나 최초 최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개교 120주년을 바라보는 즈음에  
경영대학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경영대학의 미래는 앞으로도 계속 밝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봄이 지나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오듯이 오래된 사람이 떠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환경이 시작됩니다.  
저는 든든한 울타리였던 북악산 기슭, 안암의 동산을 떠나지만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저의 마음의 고향인 고려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경영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권수영 배상

## 퇴임사



정년퇴임에 앞서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네요.

학자로서 더 좋은 연구를 많이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도 많고,  
제자들을 좀 더 잘 도와주지 못한 것, 동료 교수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내지 못한 것 등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을 역임하면서 연구소의 설립 목적상  
국내기업의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연구나 정책세미나 등을 하게 되고 기업 경영자나  
지배주주 (소위 오너경영자) 입장에서는 좀 듣기 싫은 쓴소리도  
자주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 기업과는 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국내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이의 주된 원인이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투자자들의 공감대와 함께  
정책당국자들에게도 설득력을 가져 다양한 지배구조개선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가장 보람된 일은 제자들이 잘되는 것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자주 연락하며 모임 하는 모습을 보며 교수가 되길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밖에도 기업들과 이런저런 일을 같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자가 수업을 들었던 제자라고 인사할 때도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학부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 4년의 학창 생활을 통해 지극히 내성적이었던 저를 좀 더 적극적이고 모험심이 많은  
사람으로 바꾸어 준 곳이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사람을 바꾸는 곳”입니다.  
저를 바꾸어 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경영대학 교수님들과 교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서 배상**





## 고려대 축구부 100주년 기념식

왼쪽부터 홍명보 기념사업회장, 정몽원 고우체육회장, 이종환 제4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김동원 총장,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현 회장

고려대 축구 100년의 역사를 축하하는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2023년 12월 18일(월) 오후 5시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그랜드볼룸 한라 홀에서 '고려대 축구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몽원(경영74, 경영대 교수회 명예회장) 고우체육회장, 김동원(경영78) 총장, 정몽규(경영80, 경영대 교수회 부회장)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고려대 축구부는 한국축구 역사와 함께 했으며 1923년 고려대 전신 보성전문학교 운동부로 시작해 일제강점기 경성과 평양의 축구대항전인 '경평전'의 대표선수를 배출하며 축구 명문학교의 입지를 다졌고 초대 월드컵 감독을 역임한 김용식 원로,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축구팀인 서울중앙여중 축구팀을 창단한 김화집 원로도 고려대 출신이다.

고우체육회가 주최하고 울산HD 홍명보 감독이 기념사업회장을 맡아 준비한 이번 기념식은 1부 '민족과 함께 나라와 함께, 대한을 호령한 백 년의 포효'와 2부 '백 년의 역사가 천 년의 역사를'로 나눠서 진행되었고 고려대 축구인들의 유품, 소장품 전시, 공로상 수여, 100주년 기념영상 상영 등 고려대 축구부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행사가 됐다.

정몽원 고우체육회장은 "고려대 축구는 특유의 추진력과 상호협력, 정신력을 바탕으로 마치 하나의 축구 경기처럼 치열하게 이어져 왔으며, 이는 고려대가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동원 총장은 축사로 "대학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불멸의 이름으로 새겨질 수많은 선수가 고려대 축구부의 유니폼을 입고 누볐다"라며 고려대 축구부의 위상을 되새겼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대한축구협회는 100년에 걸친 고려대 축구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고 지지하겠다"고 고려대 축구부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홍명보(체교87) 고려대 축구 100주년 기념사업회장은 "거친 불모지를 옥토로 일구어낸 선배들의 헌신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다가올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더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려대 축구 100년을 기념하여 제44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종환(상54) 원로에게 공로대상을, 올해 고교 축구 6관왕을 이끈 영등포공고 김재웅(체교91) 감독에게 자랑스러운 후배상(지도자 부문)을,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 05의 이재성 선수(체교11)에게 자랑스러운 후배상(선수 부문)을 수여했다.

# “모교와 교우가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에너지네트워크 기부 CHAIN”

유니코글로벌과 썬코리아는 국내 유수의 에너지 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전국의 산업단지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붕임대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모교와 교우가 탄소중립을 함께 실현하는 에너지 네트워크 기부 CHAIN”은 지붕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교우기업의 태양광발전사업 투자금의 2%(100억 목표)를 모교와 교우회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유니코글로벌과 썬코리아는 투자금의 1%를 모교와 교우회에 기부하고  
둘째, 유니코글로벌과 썬코리아는 참여하는 교우의 명의로  
투자금의 1%를 추가로 모교에 지정 기부하게 됩니다



## 창의활동 연구비 기부

- 학교의 역량강화를 위한 학교내 모임 지원
- 외부 연구수주 등에 대한 발전기금 지원

## 인재양성 장학금 기부

- 입학및 재학생 교우가족 장학금지원
- 성적우수생 및 에너지효율화 장학금 지원

지붕임대 태양광 발전사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계약에서 기부까지 소요기간 기본8개월)

1 연락 및 추천

2 견적 및 검토

3 계약 및 시공

4 발전 및 기부

## Energy Conversion Total Solution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소



지구와 경제를 살리는  
미래의 희망



# E1이 펼치고 모두가 누리는 E10 | GREEN 미래

친환경 LPG부터 수소, 전기, 태양광, 풍력까지  
E1이 환경과 에너지가 친구되는 세상을 펼쳐줍니다



***Anytime  
Anywhere***



**MIGHT & MAIN(주)**

사장 최 철 원 (무역88)